

기획 **미래선과 미래**

“포스트 코로나시대, 우리가 선택할 미래”

인류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10년 혹은 100년 단위로 이야기 하곤 한다. 때로는 세계 대전이나 전염병 또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20세기에 가장 큰 재난이었던 스페인 독감은 전세계 인구의 27%인 5억명이 감염되었으며, 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 즈음인 1918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1919년에 종식됐다. 흥미로운 것은 정확히 스페인 독감이 종식 된 후 100년이 지난 지금 'Covid-19'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911테러로 인해 2,97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40배 넘는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도 매월 4만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중세의 흑사병으로 당시 봉건제가 힘을 잃고 자영농의 힘이 커지게 되면서 경제구조가 재편되었으며, 천연두의 창궐로 창대했던 잉카문명이 스페인에게 맥없이 무너지면서 유럽의 금융질서가 새롭게 재편성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는 시대는 미·중무역전쟁과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겹친, 복합적이고도 거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론화 하고 있다. 결코 미래세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일을 준비해야 되

는 것일까? 미국의 전산학자이자 현재 '애플'의 초석을 준비했던 앨런 케이(Alan Curtis Kay)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각 나라에 선거철이 되면 자주 거론되는 명언 중의 하나이지만,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삶에서 가장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허리케인을 맞이 하기도 하고 금융위기를 맞기도 하며, 팬데믹을 맞기도 한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은 아니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미국은 지난 백년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 다. 미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세계의 질서

를 좌지우지한다. 그럼에도 흑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미국의 대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커다란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다.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선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큰 사건이 될 것이다. 다가올 10년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결정해야 될 때이며, 그 결정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개막되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뉴욕 골든클럽’ 올해 첫 골프대회

회원 30명 참석...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최우선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회장 조상근) 시니어들의 모임인 골든클럽이 2020년 9월 3일 뉴욕 Walkill Golf Club에서 올해 첫 골프대회를 가졌다. COVID-19로 인하여 여러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총 30명이 참석,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뉴욕골든클럽(회장 손경택)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골프대회를 갖는 등 여러 행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COVID-19으로 3월 신년교례회부터 모든 대면 행사가 취소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이 골프 등의 야외 스포츠를 저위험으로 판정하였고 많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어서 골프대회를 과감하게 개최하였는데, 평년수준인 30명이 참석하였고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성적이 부진했던 가운데 1부(여성포함)에서는 1등 권정덕 2등 우규환 3등 홍예경, 2부에서는 1등 김영만 /임도혁 3등 최병우 회원이 수상했다. Close pin은 파3 4홀 모두에서 시상하였는데 3번홀 김병순 7번홀 이대영 11번홀 오유섭 15번홀 김광현 회원이 입상했다. 다음 대회는 10월 7일 (수요일) Sunset Valley에서 서울대뉴욕동문회 골프대회로 모일 예정이다. <기사제공=골든클럽>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이항렬(법대 57)

한국과 미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자못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두 나라 모두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로 분열되었고, 두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기 보다는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하여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들이며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정적들을 적폐, 수구 골통 보수파, 심지어는 친일파라고 비난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들을 극좌파, 사회주의자, 더 나아가 공산주의자로 몰고있다. 두 지도자는 본인들의 정치 세력을 공고히하기 위하여 선동정치(Demagogic), 인종(Ethnic)에 기반한 배타주의, 지역에 의존하는 인기 영합주의(Populism) 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두 대통령 서로 진보(문재인) 또는 보수(트럼프)를 대표한다고 하나 사실 두 지도자는 참다운 의미의 진보 또는 보수의 행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진보 애국파라 자칭하나 민생 경제를 파탄시키는 비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 지지층의 임금 인상이나 혜택에만 급급하고,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나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일반 서민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여유있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그의 주택 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최근에 출판된 Yale대학의 Don Jans의 저서 "The Road to Tyranny"에 의하면 현재 민주주의가 독재, 전체 정치로 퇴보하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 집권자가 상투적인 수단으로 신문, 방송, 인터넷 트윗, 유튜브 개인 방송 등을 총동원하여 자기의 의견과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 조롱의 메시지를 쏟아내서 사회를 분열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 목적인 자유, 평등, 우애 정신들을 말살시킨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 정부가, 미국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조작하는 흑색 선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도 전체주의(Authoritarian or Tyranny)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트럼프 두 대통령들은 논란이 많았던 선거를 통해 집권했으며, 그들의 공동된 정책은 각급 법원을 자기편으로 메우고, 이어서 공영 방송을 장악, 비판 언론 추방, 인종주의에 따른 역사교육, 정치적 반대자 투옥, 삼권분립 무시, 야당 탄압 등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에서는 판사 임명, 징계권을 전 위원회를 사실상 집권여당 휘하로 만들고, 헌법 재판관을 친 정부 판사로 채웠다. 검찰 총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공수처를 만들었고, 윤석열 검찰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시할 수 있도록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미국에서도 법무 장관 Bill Barr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역할에 더 치중하며 대통령의 위헌적인 행태를 변명하는 것이 그의 주된 역할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공영 방송사 사장에 친여 인사를 앉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 200여명을 내쫓았다. 과거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역사

였다. 이런 예측은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재현하고 있는데, 그는 언제나 본인의 말만이 옳고 반대 여론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우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의 팩트체크(Fact Check)에 의하면 3년의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20,000회 정도의 거짓 발표를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는 항상 독재자들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라 칭송하며, 미국 CIA의 보고보다도 푸틴의 말은 더 믿는다고 한다. 반면, 우방 민주국가 지도자들은 이를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삼고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많은 선거 공약을 어겼으며,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머물지 않고 광화문에서

만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제도적(System), 절차적(Process)인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다수결 선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인데, 아직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접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선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직도 지역 감정이 중요한 변수이며, 장래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는 남북 통일보다 우선 동서 연합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인기 영합주의가 판을 치며 허황된 약속으로 또는 거짓말로 군중들을 선동하여 광우병 사태나 촛불 시위 등과 같이 크게 정치 판도를 뒤엎더니,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가 확고하다고 할 수가 없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너무 평등에만 치중하고 자유는 소외되는 것만 같이 걱정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통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희생되며 자유가 없어지는 방향으로의 통일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3일에, 한국에서는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 두 나라의 장래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차기 한국 대통령은 복핵 문제, 빈부 격차, 이념 갈등 등을 해결하여야 하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 세력 확장의 각축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가능성 때문에 정밀 나라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과 한국에서 자기만 옳다고 믿는 자아 도취자(Narcissist), 선동가(Demagogue), 비타협자, 정적하지 못 한 지도자들은 당선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이념에 따라 극우 또는 극좌로 치달는 지도자들은 국민을 포용하지 못하고 양극화 시킬 것이며, 그런 정치 역학하에서는 국민들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른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게되며, 국인 서로가 비난만 일삼는 사회가 형성될 것이 때문이다.

<전 설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위에 서술한 정치 상황도 커다란 문제이지

/ 한국은 지금 /



이원택(의대 65)

왜들 이러시는가

정신이 없다. 금년 4월 총선에서 대패한 한국의 보수당이 얼마전 이름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바꿨다. 영어로는 PPP(people power party)로 등록해서 강력하고 신선한 어감을 준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새누리당·한나라당·신한국당·민주자유당·민주공화당·자유당이 될 것이고,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에 새정치 민주연합이 탈바꿈한 것인데 한국의 '진보 계통'에서는 '민주자를 선호해서 한국민주당·민주당·평화민주당·민주통합당·통일민주당·새천년민주당' 등으로 불려왔는데 어원을 따지면 '국민의 힘'이나 그게 그 것이다.

영국의 경우 1832년 후의 보수당인 Tory는 '왕을 좇출 따라 다니는 자, Tory에 대해서 일어난 진보성향의 Whig는 '촌뜨기'라는 고리타분한 말들이지만 아직도 널리 쓰여지고 있다. 다 알다시피 미국 민주당의 상징인 당나귀는 '일간야·통고잡이'란 뜻을 가진 7대 대통령 Andrew Jackson의 별명 'Jack-ass'에서 유래되었고, 공화당의 상징인 코끼리는 18대 대통령 Ulysses Grant를 '덩치 큰 감쟁'이라고 비꼬는 데서 나온 상서롭지 못한 말인데 아주 자랑스럽게 사용된다. 정부기구 명칭을 보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질 뿐더러 그 통폐합도 엉망수 맘대로 이기 때문에 나 같은 문외한은 이만 저만 헛갈리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보건부, 사회부가 합쳐서 보건사회부가 되더니 보건복지부가 되었고 문교부는 인적자원부라니, 교육과학기술부로 갈라졌고, 기획경제부, 재정경제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옛날의 내무부, 재무부, 문하부, 농림부 등에 비해 쓰기도 불편하고 말하기도 훨씬 힘들어졌다. 또한 명칭이 바뀔때마다 쓸데없는 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우려가 되는 것이다.

물론 세상이 달라졌으니 일목요연하게 역할분담을 표시함으로써 무지몽매한 국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거나 감투 쓸 사람들이 이것도 내 감투, 저것도 내 감투란 식으로 막 갖다 붙였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민족의 출렁대는, 소위 냄비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에서는 장관을 Secretary라고 한다. 건국 초기에는 영토도 그리 넓지 않았고

인구도 얼마 안 되었으므로 대통령 비서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Secretary of Army나 Navy가 Secretary of Defense 밑으로 들어가서 그 위상은 떨어졌지만, 그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말 타고 총 쏘던 시절에 꼭 필요했던 Surgeon-General이란 것도 있었는데 이는 외과의사가 차지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그 후로 이 모든 의사들의 수장이었던 "의무부장"의 역할이 확대되어 외교 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전문가를 총괄해야 하므로 소아청소년과 출신 의사가 임명되었는데도 이름은 그대로 Surgeon-General(직역하면 외과-장관)이다. 미국식 사고방식으로는 그 사람의 역할이나 업무가 중요하지 명칭은 별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Secretary of State인데 이것을 우리는 국무부 장관이라고 번역하나 실제 역할은 외무부 장관인 것이다. Washington이 대통령으로 있었을때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제일 중요하고도 골치 아픈 일이 13개 주의 통솔과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각 주를 토닥거려 줄 비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구가 Department of State이고 그 장이 Secretary of State가 되었으나 미국 정치가 국제화가 됨에 따라서 그것도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서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 Secretary of State가 관장해야 할 일이 각 주 간의 조정이나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외교에 치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은 Secretary of Foreign Affairs가 아닌 그대로 Secretary of State로 남겨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장관을 대신이라고 한다. 내무대신, 외무대신 하면서 왕의 호칭도 인공위성이 팽평 날아다니는 시대에 아직도 천황이니 옛날 옛적하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할런지는 몰라도 일본이나 미국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실속이 있는 사람들이다.

막말로 이름이 밥 먹여주나! 나는 구닥다리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정안전부보다 내무부가, 산업통신자원부보다는 상공부가 더 맛있는 것 같다. 아무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러지만 이는 마치 가짜 양주를 Valentine 30년짜리 병에 넣어 파는 것 같이 입맛이 씹스럽다. 따분한 의사질일랑 그만 때려 치우고 한국에 나가 야사한 작명소나 하나차려볼까 보다.



홍성웅(상대 58)

부동산 정책의 오류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국민은 "이게 니 나라냐?"라고한다. 그것은 마치 "국토가 정부 소유냐?"라는 외침으로 들린다. 그 동안 보여준 정권의 정책들은 자기부정적이며 자기파괴적이다. 에너지, 외교, 국방 정책 등과 함께 현 정권의 토지 및 도시 정책도 70년 가까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와 시장기능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관련법규와 세제의 개편 등 국민의 주거와 경제활동의 기본 토지와 건물의 보유와 사용 등 가격 체계를 왜곡(歪曲)하고,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는 법규들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 있다.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정치철학적인 논의는 여기서 잠시 비켜 놓고, 도시와 부동산, 주택 정책만 보아도 정부는 놀랄 만큼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 그들이 추진해온 부동산과 주택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정부의 선전에 대해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언론 기관의 지적은 보이지 않는다.

유럽의 중앙 정부가 도시와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2차 대전 패배를 재건하는 시점에서 1970년대 까지였다. 실제로 1970, 80년 대에도 유럽의 중앙 정부가 국가 전반의 물리적 계획을 관여한 나라는 프랑스(DATAR)과 러시아 외 세계 각국과의 외교에 치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그 이름은 Secretary of Foreign Affairs가 아닌 그대로 Secretary of State로 남겨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장관을 대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 후의 전화(戰禍)의 복구, 그리고 1960, 70년대 부터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탈농촌과 도시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던 개발시대에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개발은 필요한 시책이었다.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도 사회가 세계역사에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던 기적의 시대에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및 국토개발계획은 효율적인 정책이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총괄하였던 필자로서는 경제성장 초기의 국토계획은 성장과 뿐만 아니라 소

득의 분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성숙해

진 1980년대를 거치며,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을 끝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성장시대의 국토계획의 실천적 의미는 대부분 상실하였다. 현재는 국토의 물리적 계획을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은행 등 국제적 개발금융기관의 수혜국과 개도국에 한정되어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은 당연히 지방정부와 민간 부분의 몫이다. 우리나라의 개발 년대에 주택과 토지개발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공기업에 의하여 시행된 것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세기 초부터 미국은 물론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주택공급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여왔다. 좌편향적 유럽국가에서 20세기 초 부터 진행되던 '사회주택' 정책도 민간과 공공의 협조체계에 추진하였다. 이것은 민간 부문의 공급 효율성을 활용하고 과도한 정부재정 부담을 제한하려는 의도였다. '사회주택'은 정부의 보조와 금융 정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세지원은 지방과 중앙 정부가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지가와 주택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이동이 불가능한 즉 '부동(不動)의 재화'이다. 그 가치는 고유한 위치와 연계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 재화의 효용성과 가치는 해당 '부동의' 재화, 즉 토지나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환경에 민감한 주민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즉 지가와 주택 공급은 지역의 시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필요한 주택과 부동산 공급은 민간 부문과 시장이 감당할 몫이며, 필요한 공공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지방정부가 민간부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필요한 주택과 부동산 공급은 민간 부문과 시장이 감당할 몫이며, 필요한 공공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지방정부가 민간부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가격 통제하기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기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약속할 뿐이다. 정부는 되풀이하는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외면하고, 통제와 규제의 강화로 문제를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실패의 연속을 보며,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국민 특히 기저층의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낡고 공허한 정치이념으로 국민을 포획하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한·미 정치상황 모두 분열·선동정치로 '얼룩'

문재인 정권, 비자유시장 경제·국가안보 위협

트럼프, 반민주적 조치 정당화 위한 독재 홍보

'전제주의'로 퇴보 되어가는 한·미 정치 우려

사상 첫 '평의원회의' 온-오프라인 개최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긴장과 불안감은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8월의 마지막 주말, 어느 여름날과 마찬가지로 화창한 날씨 속에 평의원회의의 첫날이 시작 되었다. 행사는 1시가 넘어 시작되지만 행사위원들은 8시부터 호텔에 도착,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번 대회에 가장 중요한 점이 위생과 안전이었던 것 만큼 마스크, 손세정제, 온도계 체크 등 세세한 것 까지 신경쓸 수 밖에 없었다. 각 위치에 행사 배너를 달고 거리유지를 위해 의자배석을 체크했다. 우리 진행팀은 대회사전 가진 첫 미팅에서 세세한 행사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난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위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참석자를 맞이하기위한 팀은 물론 영상팀 등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 위생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순조로운 온라인 진행이었다. 평의원회의 역사상 한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였던 만큼 준비과정은 두배로 어렵고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다. 현장에 있는 동문들보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동문이 배가 넘는 만큼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동창회에서 특별히 Hire한 영상전문가도 있었지만 문현호 총무국장은 그들과 함께 온라인 행사의 처음과 끝을 차분하게 진행시켰다.

오후 1시가 되면서 참석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데스크에서는 일일이 참석자들의 열을 체크하며 마스크 등 위생도구와 함께 참석자들에게 동창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나눠주었다. 대회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여 준비한 선물에는 지난 15차 회기의 활동내용이 담긴 바인더와 서울대학교 로고가 적힌 컵과 펜 등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백을 받아들며 기뻐하는 동문들의 모습은 준비했던 시간들이 수고와 아닌 보람으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참석자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한 만큼 오는 분 마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이 어느때의 만남보다 더 큰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이 오고갔다. 안내데스크에는 동문들이 제작한 신간과 함께 광상희 동문시인이 신간시집을 위해 사인회도 곁들였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연영재 사무총장의 환영메세지와 함께 행사의 첫 시간으로 일리노이주 김주형 교수의 '로봇은 인간을 닮아야 하는가'가 진행되었다. 김교수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 Zoom으로 강연을 로봇전문가 다운 전문적인 내용과 함께 로봇과 인간이 함께 나아가야 할



지난 8월21일 열린 제29차 평의원회의가 끝나고 2주가 지난 9월 4일, 15대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신응남 회장이 수고한 임원들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평의원회의를 자축하기 위한 자리였다. 신 회장은 "우사히, 안전하게 행사를 치뤄낼 수 있게 힘쓰신 임원들께 감사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도 더욱 힘 내줄 것을 당부했다. 29차 평의원회의는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모두의 기원속에 성대하고 알차게 치뤄졌다.<왼쪽부터>연영재 사무총장, 최형무 편집위원, 신응남 회장, 이희만 편집집문, 이지희 간사, 박정원 편집장, 문현호 총무국장.

향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설명해 주었다.

첫 강연과 함께 참석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아가는중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세계적인 석학 김광수 하버드대 교수의 '맞춤형 줄기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 강연이 시작되었다. 막연히 '지루한 내용이 되겠거니라는'생각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흥미진진한 휴먼의학드라마를 보는것 같은 감동이 느껴졌다. "전세계의 많은 환자들을 적은 비용으로 빨리 치료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는 김광수 교수님의 말에 참석차 많은 동문들의 박수와 찬사가 이어졌다. 강연을 마치며 김교수의 노벨상 수상을 기원하며 모두들 기념촬영을 했다.

기대만 우려반으로 시작되었던 평의원회의의 첫 시간이 끝나고 다음시간으로 패널리토의가 진행되었다. 오인환 박사의 사회로 백순, 이항렬, 민병갑, 류재용, 정태영 동문이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동창회의 선배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 만큼 한국과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심도있게 제시해 주었다. Zoom으로 진행된 첫 성공사례가 되었다.

첫 만찬을 위해 다들 만찬장으로 갔다.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야외식당에서 진행되었으며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마음의 거리만은 가까웠던 시간이었다.

이어 다시 시작된 행사에서는 평의원회의의 개막을 알리며 신응남 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또한 서울음대 후배동문들로 이루어진 축하음악회의 아름다운 선율에 행사 진행팀으로서 짙어진 불안함과 흥분이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진행팀은 내일의 회의를 위해 3시간여에 걸쳐 문제를 체크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돌아가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떻게 호텔방을 찾았는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 말이다.

둘째날이 시작되었다. 진행팀은 하루종일 팍한 스케줄을 실수없이 진행하기위해 오전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9시30분 개회가 시작되고 여러 사업보고가 진행되었다. 현장에 계신분도 있었지만 멀리서, 특히 LA는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Zoom에 참석하여 본인이 맡은 업무보고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시도한 온라인 진행이었던 만큼 사운드 등 약간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가는 느낌이었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행사가 시작되었다. 오전시간 보다 더 많은 참석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했으며 특별히 지부회장단들이 모두들 참석해 각지부의 활동사항을 설명했다. 그간 상정되어 왔으나 속제로 남겨졌던 지부분담금을 현실적으로 조정, 동창회

운영기금 관리위원장 인준 등 중요 안건은 온,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이희범 회장은 한국에서 직접 Zoom회의로 참석,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를 축하해 주었으며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나타나 된 순간이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오페라 갈라 콘서트는 뉴욕 거주 남주 4중창의 축배의 노래 등의 유려하고 힘찬 보컬은 동문 모두에게 격려와 용기를 더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긴장이 풀렸는지 진행팀 모두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끝났다는 해방감과 큰 실수 없이 마무리 되었다는 성취감이 더해진 마음이었다. 서로를 보며 짓는 미소에서 격려의 마음이 전해졌다.

개최 해야할 것인지 말아야할 것인지 고민도 많았던 대회를 신응남 회장의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두달 넘는 시간을 움직였으며 그리고 마침내 해냈다. 참석인원 규모만 축소되었을 뿐 어떤 대회보다 성취감이 컸던 대회였다.

이번 대회는 앞으로 100년의 동창회 미래를 바라보며, 동창회의 창대한 계승과 발전을 위해 팬데믹 시대에 불가능한 예견을 극복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치뤄진 성공적인 대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종신이사추대



변우진 (인문 81)

역임했으며 '올해의 로타리언상', '아시아 변호사협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2016년 서울에서 개최한 전세계 45,000여 회원이 참가한 국제로타리 총회에서 연사로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20대 홍콩 직장생활 경험을 기초로 쓴 '나는 지금 몇시에 와있는가'를 필두로 1994년 조선일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던 '한국인들을 위한 미국법을 상식'등이 있으며 아마존 등에 미네소타주 한인회장, 와이즈만 미술관 이사, 미네소타 로타리 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변우진 종신이사는 인문81학번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며 집필과 강연을 병행하고 있다. 미네소타주 한인회장, 와이즈만 미술관 이사, 미네소타 로타리 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동창회장 동정

코네티컷 유시영 회장 방문



8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코네티컷 주 지부 유시영 회장덕 방문을 위해 부라 부라 길을 나섰다. 방문 목적은 몇가지였다. 먼저 29차 평의원 참석위해 애쓰다가 건강문제로 참석치 못해 아쉬움에 나선 병문안, 지부 평의원에 행사기념품 전달이다. 그리고 나눔위원회 결정에 따른, 지난 10여년동안 예일대학 일대의 노숙자 선교 아가페 교회가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도움을 청하고 그간 모금된 후원금 전달 차였다. 현재 유시영 코네티컷주 지부 회장은 아가페 노숙자 선교 교회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

“다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에서는 재정 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대 임기까지 총 76분의 종신이사님들의 후원과 15대 임기 1차년도에 참여하신 17분의 종신이사님들의 이사비 납부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기금 마련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펀드 관리 위원회를 발족하고 올해 29차 평의원회의를 통해 손재욱 펀드 관리위원장을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해 주신 93명의 종신이사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신 동문들

의 힘으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새로운 인재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과 커뮤니티 그리고 미국과 한국을 통해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지 보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넘어서 세대와 민족을 잇는 인재들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만여 서울대 미주동문 여러분,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이 땅에 뿌리 내린 삶의 선배로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 한경진 재무국장 교수임용

미주동창회의 한경진 재무국장이 샌디에고 Point Loma Nazarene university의 Voice faculty로 임용되었다. 한 동문의 앞날에 성공을 기원한다.

던 음악회의 총 디렉터로 활약, 미주동창회 임원으로서는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 동문의 앞날에 성공을 기원한다.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차차기 회장 후보추천 공고

제17대 (2023. 7. 1. - 2025. 6. 30) 회장 후보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중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실 차차기회장(제 17대 미주 동창 회장: 2023. 7. 1. - 2025. 6. 30.)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후보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직전 회장, 현회장, 차기 회장 지역은 제외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접수마감

인선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 신응남 회장 | 노명호 차기회장
978-386-5510 | 646-523-9606 | 626-991-4457

이용락 (사카고) | 황효숙 (미네소타) | 손재욱 (필라) | 정평희 (워싱턴D.C.)

제 17대 회장 (2023. 7. 1- 2025. 6. 30) 선거일정 및 근거규정

선거일정

- 1. 2020. 12월 31일 차차기회장추천서 접수마감
- 2. 인선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후보는 회보 등을 통하여 출마공약을 발표.
- 3. 2021년 6월 전국 평의원 회의(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차차기 회장 확정.

근거규정

- 1. 근거규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인선 위원회 규정
- 2. 차차기 회장 후보는 서울대 미주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 했거나 동창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동문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으로 한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뉴잉글랜드동창회 온라인포럼

김은한 박사 ‘고선지 장군’ 강연

<의대 60>

뉴잉글랜드동창회(회장 김정선)가 주최하는 월례 온라인포럼이 세번째 강연을 맞아 9월 16일 김은한 박사를 초청 ‘고선지 장군’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강연에서 평생 끊임없는 열정으로 역사 연구를 해온 김은한(의대 60·사진) 박사가 ‘고선지 장군’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고선지 장군과 그를 둘러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선사했다.

고선지 장군은 고구려 멸망 후 갈수록 지역으로 보내진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변방 지역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고원까지 넘나들며 수많은 전공을 세운 당나라 장수다. 고선지의 부친 고사계는 이민족들을 장군으로 기용하던 당나라의 변장제도에 의해 변장이 되어 당나라 서북쪽에서 무공을 쌓았고, 고선지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음보로 등용되어 무장의 길을 걸었다.

트였던 파미르를 두 번에 걸쳐 탐사해 고선지 장군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영국의 탐험가 겸 고고학자 오렐 스타인(Aurel Stein)은 ‘고선지의 원정은 한니발과 나폴레옹의 원정을 능가하는 대단한 업적’이라 극찬한 바 있다.

9월 ‘고선지 장군’ 주제 포럼에 이어 10월 15일 저녁 7시에는 김광수(자연대) 박사가 ‘맞춤형 줄기 세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란 제목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연구 결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ZOOM 포럼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동문들은 이메일(snuane@gmail.com)로 신청할 수 있다.

고 이재신 뉴잉글랜드 전 회장

NE동창회 장학기금 쾌척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3대 회장(2001-2003)을 역임한 이재신 동문(공대 57·사진)이 지난 8월 29일 급성 뇌졸중으로 선종하였다. 고 이재신 회장은 동창회의 초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오랜 동안 장학기금 쾌척을 비롯, 최근까지 여러 행사에 참여, 후학들을 도왔다.



NE 동창회에서는 이화여대 동창회와 공동으로 추모모임을 주최, 지난 9월11일 Zoom을 통해 유족을 모시고 5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생전의 좋은 추억과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NE 동창회에서는 이화여대 동창회와 공동으로 추모모임을 주최, 지난 9월11일 Zoom을 통해 유족을 모시고 5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생전의 좋은 추억과 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인 김홍혜 여사와 자녀분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기념장학 기금을 쾌척, 현재 진행되고 있던 장학기금 10만 달러 목표를 앞당겨 주었다. 또한 2021년도 장학사업에도 세 자녀가 한 학생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하였고, 조의금도 장학금으로 예치하기로 했다. 1938년 목포 출생인 이 동문은 중안고교

와 서울공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도미하였으며, 1967년 Georgia Tech 졸업 후 1969년 보스턴에 이주하여 가죽 제품 사업을 시작, 최근까지 부동산 매매와 임대 사업을 하였다. 보스턴 지역의 한국학교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고 이재신 동문은 부인 김홍혜 여사와 슬하에 세 딸 및 손녀를 두었다. 추모회는 윤희경 동문(문리 62)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이어 고인의 장례 미사 및 하관식 사진 중 일부를 같이 보며 고인을 추도하였다. 장례의 절차는 지인들과 동문들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보내드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고/ (고) 김규현(법대 53)



김규현(법대 53) 동문이 8월 31일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도미했다. 전자무역 회사인 'KE 트레이딩'을 설립, 회장 겸 CEO로 경영하다 은퇴했다. 또한 지난 2016년까지 월세은행 이사를 역임했고, 월세은행 행정선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부부가 법대 동문(wife: 김운진, 법대 53)인 고인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윤상래 전 미주동창회장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수상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14대 회장 윤상래(수의대 62·사진) 동문이 서울대 수의과 대학 동창회에서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서울대 수의과 대학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은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모교와 동창회 명예를 높이거나,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50세 이상의 동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뜻깊은 상이다. 윤상래 전 회장은 한국에서 녹십자에 미



생물부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1972년 도미했다. 캔사스에서 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1977년 보스턴으로 이주해 동물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윤회장이 직접 디자인하고 건축한 동물병원은 6000 sq의 크기에 배후에 23에 이커의 숲도 있다.



수의대 본관 생명공학연구동

에드워드 - 인애 강재단 장학생 발표

에드워드 강 (사대 60·사진), 강인애 부부가 2017년에 설립한 에드워드-인애 강 재단이 금년에도 계속하여 장학생 10명과 비영리단체 3곳을 선발 지원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일인당 \$ 5,000이 수여 되었으며, 비영리단체에는 금년 현재까지 총 \$24,000이 지불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에는 과거 3년과 같이 The Juliard School of Music (Pre-college Division), Memorial Sloan Kettering Hospital, American Composers' Orchestra에 지원하고 있다. 에드워드 강 설립자는 1968년에 도미 유학, 공인회계사로 미국회사와 맨하



탄에 개인사무실을 경영하다 10년 전에 은퇴하고 그간 뉴욕시 부근의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뉴욕지부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교육에 투자하면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환원된다는 신념과 희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장학생들은 후에 훌륭한 인재가 되어 남들을 도와 밝은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재단의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 알립니다 /

장동만 동문 책 80권 기증
책을 원하시는 분은 동창회로 연락바랍니다

운송+Handling \$1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6개월만의 만남 ‘남가주 첫 야유회’

민일기 회장 등 임원 14명 참석

지난 8월 15일, 남가주총동창회(회장:민일기 약대 69)에서는 El DORADO PARK에서 임원 야유회를 가졌다. 지난 2월 신년회 이후 첫 모임이어서 임원들과 친지들은 다소 흥분된 마음으로,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민일기 부부, 강호석(사대 81) 감사, 홍성선(약대 72) 총무국장, 조용국(사대 94) 부총무국장, 박제환(문리대 75) 재무국장, 이상호(사대 80) 사업국장, 이호진(간호대 74) 부사업국장, 최경석(사대 80) 행사위원장, 양수진(간호대 80) 기획위원, 이영현(간호대 70) 섭외위원, 김옥권(미대 76) 문

화위원 등 14명이다. 민일기 회장은 광복절날, 남가주 총동창회 임원들이 오랜만의 모임을 축하하며 "Zoom 임원회 회의때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간호대 회장의 제안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며 감회를 전했다. Zoom 회의로 장소가 ORANGE COUNTY와 LA COUNTY 중간에 있는 EL DORADO PARK으로 결정되고 그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모이기로 결정했다. 거의 모든 임원들이 얼굴을 실제 마주하기는 2월 이취임식 후 처음이었다. 오랜 만에 만났으니 모두 얼싸안고 허그를 해야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바람 악수로 끝냈다. 그리고 모두들 한가지씩 준비한 빵과 커피, 떡과 김밥 등으로 아침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임원중 막내인 사대 94학번 조용국 부총무국장으로 초등 학교 다니는 귀여운 아들, 딸을 데리고 왔다. 아마도 휴일에 부인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려는 배려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동안 많이 자라고 성숙해진 것 같다. 모두들 모여서 공인 근처를 단체로 산책하고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니 오랜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듯하다.

이후 10월 말이나 11월 즈음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 야유회를 El DORADO PARK 에서 개최하기로 임원들과 뜻을 모았다. 2020년 모든 취소된 행사를 총정리하는 의미이다.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남가주 ‘각 단과대 소식’ 나누며 즐거운 시간

단과대 회장단 모임 10여명

지난 9일, "서울대 친목모임"이 오랜 만에, 아주 오랜 만에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강남회관 한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덕분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레 자리를 잡는다. 의술을 거의 못해 모두들 집에서 답답한 나날을 보낸다고 불만들을 이야기한다. 이 모

임은 각 단과대 회장단을 중심으로 10년 전에 결성되었다. 각 단과대 소식도 듣고, 경사는 서로 축하해 주고 조사는 위로해 준다. 생일을 맞은 회원은 축하도 해 준다. 이날 참가한 사람은 민일기(약대 69) 남가주 총동창회장 부부, 김병연(공대 68,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박상길(농대 58,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신영찬(의대 63), 채규환(법대 69, 전 법대회장), 신정연(미대 61, 전 미대회장), 이영현(간호대 70), 지수환(농대 56),

홍선례(음대 70, 전 음대회장) 동문 등 10명이다. 거기서 우연히 오홍조(치대 56,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상임이사님을 만나 무척 반가웠다.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인 마스크와 안면가리개를 선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날 행운의 주인공은 신영찬 동문이었다. 이후 김병연 회장이 운영하는 PARKVIEW Gallery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나눴다.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최 석 교수 철학과 첫 한인학과장 선임

<Towson University>



최석(사진) 동문이 타우슨대 인문계대학 철학과에 첫 한인학과장으로 임명됐다. 미국 대학에서 인문대학은 물론 철학에서 비영어권 출신 교수가 학과장을 맡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타우슨대의 아시아학 융합 프로그램 디렉터를 역임하고 학과장을 맡은 최석 교수는 철학과 16명의 교수 및 학생 관리, 학사일정, 커리큘럼 구축 등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수장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대학교에서 미학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한 최 교수는 뉴욕주립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6년 타우슨대 철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2012년 종신교수가 됐다. 최석 교수는 "과학, 컴퓨터 등 이공계에 비해 영문, 역사, 철학 등 인문학 계열에서는 영어권이 아닌 소수인종 출신 교수는 극소수"라며 "동양철학과 동양미학 연구를 통해 한국철학의 진면목을 세계 학계에 알리고 인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창설된 북미한국철학자협회(NAK-PA)의 창립 멤버인 최 교수는 한국철학의 위상을 높이고 그 의미와 가치를 세계 학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학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동양철학 및 동양미학 관련 논문 저술에 힘쓰고, 2019년에는 동아시아 철학과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본 '기철학' 저서를 편저했다. 최 교수는 "서양철학자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 철학자에 비해 한국철학자가 너무 적어 한국철학을 알리는 기회가 거의 없어 아쉽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불교, 유교, 도교사상은 물론 한국 신종 철학사상 등을 전 세계 관련 학자에게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발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ua.org

SNU Sydney Branch Australia

호 주 동 창 회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힘찬 도약”

호주 시드니 지부 창립 50주년

1. 역사

1971년 4월 25일에 시드니에서 서울대학교 동창들이 그 당시 총영사인 심명원 총영사님 관저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초대회장 우재린(섬유공학 46), 초대 부회장 조기성(물리학 52), 이응표(항공공학 53), 김설규 (대학원경제학 59), 송진곤(광산공학 61) 5명의 동문들이 모여 발족하였다. 내년 2021년 4월이 되면 창립 50주년이 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창회에서는 “창립 50주년 기념 동문집”을 발간 준비중이다.

호주 시드니지부는 NSW GOVERNMENT FAIR TRADING에 Seoul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 Alumni INC - INC1600063로 등록되어 있다.

3. 회원

동문회원은 약 160명이며 정기총회에 모이는 숫자는 약 80명이다. 서모모, 서육모가 60여명, 서철모, 서팔모, 서구모, 서공모가 20여명 정도이다. 각각의 10년대 그룹별로는 많은 멤버가 모이고 있다.

확보된 이메일 주소 갯수는 130여개이다. 시드니 지부 그룹스nuasydney@googlegroups.com을 통하여 동문전체에게 소식등을 전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다. 시드니지부 이메일 주소: snuasydney@gmail.com을 담당하고 있는 동문은 배영민(계산통계학93)총무이다. 현재 제21대 동창회장은 김정인(간호68)여성 동창회장이다.



스는 주변의 하버브리지와 함께 멋진 전경을 자아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표적 이미지 가운데 하나이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는 오페라를 감상하지 않고도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다.

(2)시드니 동물원 코알라파크 (KOALA PARK Sanctuary) : 세계 어느곳에서도 볼 수 없는 신비와 환상의 동물, 코알라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곳이다. 물론 뒷발로 뛰는 캥거루, 날지 못하는, 타조다음으로 큰 새 에뮤(Emu·키1.8m), 사람의 언어를 흉내내는 시끄러운 대형 앵무새 코카투(Cockatoo), 호주의 개 덩고(dingo)등 호주에만 사는 동물 이외에도 여러가지 동물을 자연환경 그대로에서 볼 수 있다. 긴나무들이 쪽쪽 뻗어 있어 공기좋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2. 활동

시드니지부 동창회(회장: 김정인)는 입학년도 10년 단위로 (예를들면 '서육모'-서울대학교 60년대 입학)모여 2달에 한번씩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전체 동문회는 일년에 한번 11월에 정기총회와 함께 연말 송년회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 신년 하례식으로 모인다. 골프 동호회는 2달에 한번씩 모인다.

4.특징

전체동문이 야유회 및 정기총회, 연말 송년회로 모이다가 2011년부터 입학년도 10년 대별로 간사를 임명해 소그룹 동문회로 부터 시작하면서 동문들의 친목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전체 동창회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활발해 졌다. 시드니 한인회장 총 23명중 10명이 서울대 호주 시드니지부 동창회 출신이다.

5. 해외 동문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

(1)시드니 오페라 하우스(Sydney Opera House):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전세계에 설게 디자인을 공모해 32개국으로 부터 233개의 디자인중에서 선정된 덴마크의 예른 웃손(Jorn Utzon)의 작품이다. 오페라는 물론 모든 종류의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장소이다. 조개 껍질처럼 생긴 지붕의 아름다운 건축양식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6. 문제점과 해결방안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직장일에 바쁘고 어린자녀들을 집에 두고 동창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족단위로 동창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고 있다.



시드니 동창회 임원단



친선 골프 모임



농장방문



김원호(약대 63)

/ 전문 칼럼 /

대.재.앙 The Pandemics①

예기치 않던 천재지변이 일어나 인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을 재앙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에는 근년에 들어서 지진에 더하여 연중행사처럼 산불이 나서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는 플로리다에 매년 닥쳐오는 허리케인 그리고 중남부지방에 토네이도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도 근대 과학 기술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를 대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 기후변화, 핵관련 사고와 오늘날의 Covid-19 전염병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인류 삶에 대한 변화와 위협은 미리 인지는 하여 왔으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겪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우리 후세대의 안전을 위한 기후변화나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에 의한 환경 및 생활변화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더욱 심혈을 기울이면서 연구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우리 후세대를 위한 해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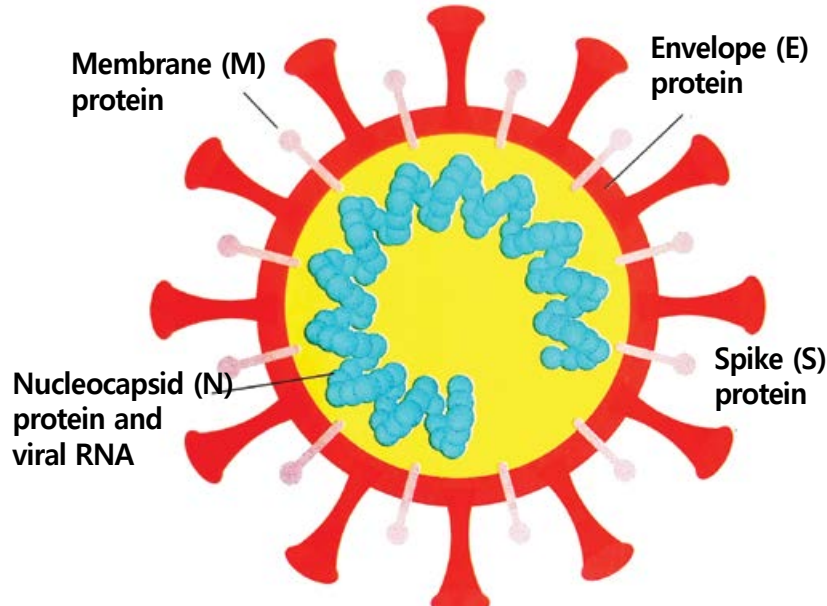
소위 SARS-CoV-2로 명명된 코로나 virus는 중국 우한의 한 생명 공학 연구소에서의 실험물질이 야생 동물을 판매하는 식용 동물 시장으로 전파되어 퍼지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Los Angeles County의 경우 지난 3월 중순부터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2십5만여명의 확진자에 6천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내며, stay-at-home 명령이 발동되어 많은 경제 활동, 학교 교육 및 개인 정신 건강에 막대한 손실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전체로는 6십 5만명의 확진자 중의 2%가 사망하였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the second wave를 걱정하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천만 인구가 감염되어 거의 3%의 감염자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방역 관리가 잘 되면 한국에서도 다시 발생을 증가의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바이러스 재앙을 막아 널려면 치료약은 물론 vaccine의 개발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임상 제 3상까지의 실험을 확신을 가지고 끝낼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안전성과 효험이 보장되는 백신이 출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불편한 사회생활일 망정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사용하기' '세제 손 씻기' '집단모임 자제하기' 등의 행정부서 지침을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다.

Covid-19 virus의 특정 부위는 우리가 신문 사진이나 TV 뉴스 화면에서 자주 보는 버섯 모양새 돌출 부위의 소위 spike protein 부분을 일컫는다. 즉, 1. Inactivated virus vaccine 2. Subunit protein vaccine 3. Viral vector

vaccine 4. Nucleic acid vaccine으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가 홍역 백신 처럼 생 바이러스를 분리시킨 후 효력을 감소시켜 사용하거나, 열처리 또는 포르마린등의 약품으로 실험실에서 사멸화시켜서 바이러스가 증식 못하게 약독화시켜 투여한다. 대부분의 소아용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천연두, 소아마비 백신들은 이와 같은 제조 방식

하는데 이 도킹 포인트에 랜딩 과정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법을 사용한다. 본 제조 방법은 살아 있는 혈장 바이러스를 다루므로 특수 안전 조치와 방어 설비가 필요하고 제조 기간도 오래 걸린다.

두번째는 면역력 관련 바이러스의 특정부분을 분리해 내어서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등의 adjuvant(면역 보조제)를 사용하여 선천 면역 능력을 자극하고 활성화 시킨 후에 효험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연구, 제조 분야의 업체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한국에서 혈장 백신방법으로 B형 간염 백신을 제조하곤 하였으나 2000년대 부터는 대량포진 백신 제조등에서 보는 유전자 조합 백신이 대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필요한 유전인자를 카피하고 오려 붙여서 제조함으로써 시간도 단축하고, 안전 제조 설비도 혈장 백신 제조시와 비교하여 보다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Covid-19 virus의 특정 부위는 우리가 신문 사진이나 TV 뉴스 화면에서 자주 보는 버섯 모양새 돌출 부위의 소위 spike protein 부분을 일컫는다. 즉, 1. Inactivated virus vaccine 2. Subunit protein vaccine 3. Viral vector

세번째가 adenovirus등의 다른 종류 viral vector(바이러스 운반체)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재결합시켜 제조, 운반하는 방법으로써 인체내에서의 면역세포 증강을 지시하게 하는 원리이다. 이 방법은 소위 유전자 가위 (CRISPR-Cas System)를 운반체에 실어 주입하면 감염된 세포내에서 침입한 나

vector vaccine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독감 백신을 매년 여름 마지막 철에 맞는다. 즉, flu vaccine의 효험은 약 70%의 접종자에게 유효하며 효력은 1년 밖에 가지 않는다. 매년 바이러스의 타입이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여서 1년마다 접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효력이 있을런지, 그리고 생성된 항체의 바이러스 중화 효력이 얼마 동안 지속될지는 오랜 동안의 임상 실험의 data 수집과 해석이 필요하다. 서울러서만 될 일은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60여개의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보건성에서는 소위 'Operation Warp Speed (OWS)'라고 하여 2021년 1월까지 3억 도스의 백신 출하를 목표로 보건성을 위주한 국방성등 각급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약 10억 달러의 정부지원을 몇몇 제약 연구 업체에 백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년이 걸리는 임상을 몇달 만에 끝낼수 있게끔 초특급 fast track허가도 보장하고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범세계적 대재앙의 국면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안전하고 효력이 보장되는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제는 OWS가 일부 특정 제약업체에 명백하고 타당성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약식으로 업체 선정을 하여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행정 처리에 불신 불만을 표시하는 전문인들도 있다. 그러나 틀림 없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하여서는 백신이 꼭 필요하다. 의사와과학자들은 유효한 백신을 받듯이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현재 백신 후보 물질로써 20개가 임상실험중에 있고, 약 140개가 전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는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제1차로 개발하여 등록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임상 실험을 생략 또는 우회하였기 설삼이므로 그 효력을 믿기 어렵기도 위험 하기도 하다고 우려한다. 즉, 인체용 약품으로써의 효험에 가장 중요한 대단위 마지막 임상 실험의 단계인 clinical trials가 완료되는 것이 safety와 effectiveness를 보장 할수있는 필수조건이다. 아마도 그들은 2003년 발생하였던 SARS 급성 호흡기 질환관련 바이러스 백신을 계속 연구하여 왔고, 같은 계열이라고 믿어지는 covid-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따다가 재조합시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호에 계속>

/ 동문 시 /

바람이 분다



손명세(공대 60)

빌딩 숲을 횡행하는 바람처럼 종잡을 수 없이 분다. 이 아침, 길가 숲속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찬다. 온갖 움직임들의 비명이다. 굵은 가지들은 침녕쿨에 감기듯 바람에 휘감기고, 잔가지들은 두려워서 숨이 가쁘다.

이파리들은 영문 모른 채 뒤집히고, 뒤집힌

이파리들이 열에 들뜬 듯 서로를 뒤집는다.

시달리던 잎들이 혼절하여 나 뒹굴고,

매그놀리아 열매가 수류탄처럼 난다.

다시 온 4월의 게르니카 폭격이나.

숲은 신이 증발해버린 듯 혼란이고

바람은 그 속을 뚫고 티폰(Typhon)의 길을

무식하게 내달린다.

그런 이 아침,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고 한 시인이 떠오른다.

불현듯 느낌표 기호가 기침 나듯 튀어 오른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1871~1945)의 장시 '해변의 묘지' 마지막 연의 한 구절

/ 동문 시 /



오(조)봉완 (법대 53)

그해 여름

길고 긴 여름이었다

몹시 더운 여름이었다

시끄러운 여름이었다

귀찮아 진 여름이었다

사사오입하면

나이 90이되는 여름이었다.

바다같은 호수 옆의

신선 지 같은 시카고 여름도 사라진 듯한 여름

감염증이 온 세계 를 휩쓸어

지구상 어느 구석도 안전하지 않아

갈 곳 없었던 여름이었다

최고 연장자로

최고 감염 위험 동아리에 있어

나갈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었던 여름

정의와 사회 개조 추구의 평화로운 시위가

폭동으로 곳곳에서 터지던 여름

대선으로

가족, 친구들을 적으로 만들던 여름

귀찮은 세상

시끄러운 세상

눈부시게 해가 쏘이는 날에도

눈앞이 캄캄하게 느껴졌던 여름

너무 오래 살았나

익문하던 여름이었다

그럴 때 마다

예언없이

감염증 오염된 탁한 공기를 뚫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친지들의 목소리가 들려와

어두운 꿈에서

깨워주던 여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도, 이 여름도 지나가리라

견디자

이 나이까지 그래 왔는데

조금만 더 견디자

모든 일이 그랬듯이

이 일이라 다르랴?

견디자, 견디자

마음을 다스리던 그 여름

그해, 그 여름

끝 없이, 멀미나게 길던 여름도

다 지나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미시간 호수 가 에반스톤에서]

/ 삶과 기억 /

사변동이



민일기(약대 69)

우리 사변동이들은 민들레처럼 험난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아 이제 올해 70이 되었다. 딸이 넷이나 있으지만 오매 불망 큰아들 밖에 모르던 구순을 훌쩍 넘긴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은 치매기가 있어서 오랜만에 내가 귀국해서 손을 잡고 “어머니, 큰 아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하면 나를 물끄럼이 바라보시고 아직도 그 고운 얼굴에 싱긋이 미소만 띄우신다.

그 어머니께서 정신이 그래도 멀쩡하시던 10여년전에 우리집에서 사실때 나를 붙들고 놀이얘기하셨다. “너를 낳고 삼십일이 되니 육이오가 났단다. 어물어물하다가 피란을 제때 못가 서울서 무척 고생을 하다가 1.4 후퇴때에는 갓난 너를 업고 내 친정집이 있던 여주로 걸어서 피란을 갔지. 네 아버지는 늦게 군대에 끌려 가서 소식도 없고 그런데 네가 덜컥 홍역이 걸렸지 뭐냐? 열이 펄펄 끓어서 그때 홍역이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자빠질땐데 내 친정사촌동생이 넷가에 가서 가재를 잡아서 즈음내서 먹여 네가 살아났단다. 그당숙이 네 생명의 은인이나 까 잘 해야한다.” 내가 오촌당숙이 잡온 가재때문에 살아나 지금까지 70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피란살이에 어머니등에 늘 업혀 피란을 다니다 내 다리가 쭈뼛어서 안짱다리

된 모양이다. 아버님은 30도 넘는 나이로 군대에 끌려가셔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제이 국민병으로 총알받이로 첫전투에 투입됐는데 중공군이 새까맣게 몰려 오는데 그대로 있다는 고스란히 죽게 생겨서 할수없이 절벽으로 굴러 뛰어내렸는데 깨어보니 군인병원이었던단다. 그래서 상이용사가 되어 제대하시고 그 바람에 내 친구K형처럼 아버지없이 자라는 것은 면했지만 아버지는 특하던 없어지기가 일수였다. 그게 유식한 요사이 말로 하면 PTSD 때문이었을까? 특하던 가출을 하시는 아버님때문에 내 어린시절이 굴곡이 있었는데 우리집뿐아니라 우리나라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집이 총무로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때 4.19가 나서 그당시 명동입구 내무부 앞에서 데모대에 휩쓸려 따라가다가 앞에서 경찰이 총을 쏘니까 앞에 사람이 픽픽 쓰러져서 죽을힘을 다하여 도망치다가 또 앞의 군중이 뭔가 도와줌을 치며 앞으로 나가면 빛도 모르고 다시 뒷따라가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있었나 이승만 할아버지께서 대통령 그만한다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4.19혁명에 일찍부터 참여한 어엿한 혁명전사가 됐다.

그리고 한 일년지나니까 아침에 요란한 총소리가 나고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군인들이 한강다리를 건넜다는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침 KBS 방송국이 남산에 있어서

올라가 보니 정말 군인들이 방송국 대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우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하고” 하는 혁명공약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중학입시에 체력장이 도입되어 턱걸이 연습을 제법 열심히 했다. 고등학교때는 문학청년이 된다고 ‘이상’이나 ‘김유정’ 소설을 너무 읽었더니 결국 그들처럼 폐결핵에 걸려서 한참을 해마다 간신히 나았다.

결국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대학을 들어가니 의식이 좀 생겼는지 2학년때에는 농촌봉사를 한다고 경상남도 양산 원동마을에 갔었다. 한여름 봉사를 마치고 동네앞 개울에서 목을 감는다고 들어 갔다가 허마터면 역사할뻔 했다. 며칠배운 수영 실력으로 앞으로 좀가다가 일어서보니 머리가 안나오는 것이 아닌가? 당황해서 물을 좀 먹고 쿵쿵, 쿵쿵하는데 책에서 본 Near death experience처럼 짧은 순간 내인생이 film처럼 빨리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것이 보인다. 그리고 환한 빛이 보이고 내가 그러로 빨라가게서 대통령 그만한다고 내려오셨다. 그 환한 빛이 얼마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던지 그런데 그순간 같이 있던 친구가 나를 구하러 왔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친구를 붙들었다는 모양인데 다행히 깊은데가 아니어서 간신히 돌이 밖으로 나올수 있었다. 학창시절은 계속 암울했고 삼선개헌반대데모, 교련반대데모, 위수령등등으로 4년내내 수업일수 지키기는 지난한 세

월을 보냈다. 나도 그 데모 뒷자락을 따라 다니다가 그바람에 제명도 당했다가 박통의 자비(?)로 복학을 하고 우리 아버님처럼 간신히 살아나서 졸업하였다.

100억불 수출과 1000불 국민소득에 목을 매어 죽어라고 일했고 “하면 된다”를 말을 믿었고 “안되면 되게하라”는 말로 집안 환경이나 운명을 탓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늘 있었다. 그러다가 어쩌다 미국에 오게 되고 4년 동안 늘 데모의 뒷전에 있어서 학교에서 들은 수업이 별로 없어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니 아득하였다.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공부 좀 한다는 S대학을 다녔는데 하는 자존심은 있어서 고3 할때 처음 공부하면 안 될까 뭐 있겠나 하는 정신으로 이를 악물으니 그 바람에 하도 침침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한국에서 안쓰던 안경을 쓰게 됐다. 또 그래도 살아남는 재주는 있었는지 공부를 하니 그런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이때까지 미국에서 미국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 한다. 우리세대는 민들레같이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이제70살 생일을 넘겼다. 625나기 삼칠일전 6월5일이 바로 내 생일이다. 아마도 내가 민들레와 성이 같아서 인지 이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겨내고 민들레 처럼 씩씩한 맛은 남아 있지만 살아 있을 것이다.

/ 관약춘추 /

‘폐지론’ ‘이전론’...정략 도구된 서울대



김창균 (한국 동창회보 논설위원)

서울대 폐지론이 등장한 것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태풍이 불면서였다. 처음엔 해보는 소리였거니 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동창들 사이에서 “평등주의자들에 맞서 서울대를 지켜낼 충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 그런 선택이 이뤄졌다.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연회가 2003년 4월 창립된 것도 서울대 폐지론 때문이었다. 2004년 5월 여론조사에서 서울대 폐지론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6.4%로 찬성 30.9%의 두 배에 가까웠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노무현 정부는 서울대 폐지론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선거 때 표 좀 얻으려

고 꺼낸 폐지론이 국민에게 인기가 없으니 이용가치가 없어진 것이다. 이후에도 서울대 폐지론은 5년 단위 대선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주로 진보 정당쪽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내 경선에 나서는 보수 정치인들도 심심치 않게 득표 전략으로 활용했다. 명분은 늘 대학 서열화 탈피와 임시경쟁 완화다. 지방마다 있는 국립대의 고유 명칭을 없애고 프랑스로부터 1, 2, 3 대학으로 부르자는 방법론도 매번 반복된다. 서울대 이전론은 이명박 정부 때 행정복합도시 수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왔

다.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대신 첨단 기업과 함께 서울대를 이전하자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함께 무산됐던 서울대 이전론이 요즘 다시 재탕되고 있다. 수도권 집값 폭등에 당황한 집권세력이 천도론을 타개책으로 꺼내면서 서울대를 세종시로 보내자고 한다. 결국 모습은 이전론이 폐지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알맹이는 단판이다. 폐지론은 서울대의 수월성을 박탈하자는 데 목표를 둔 반면, 이전론은 서울대의 수월성을 인구 분산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쪽이다. 7월말 여론조사에서 서울대 이전에 대한 반대가 54%로 찬성 30%보다 훨씬 높았다. 서울

대를 전략적인 카드로 이용하는 데 대해 국민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다만 서울대를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시도 때도없이 두드리는 동네북쪽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왜 생겨났느냐에 대해서는 서울대인 전체가 고민해 볼 문제다. 세계는 점점 한두 명의 뛰어난 인재가 나라를 먹여살리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서울대가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민 모두가 인정한다면 정치권이 선봉리 서울대를 없애느니, 장기판의 출처를 이리저리 옮기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관리자 모집

미주동창회에서는 웹사이트 제작과 관리에 봉사와 헌신으로 활동할 동문을 구합니다. 동문들의 추천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소정의 수고비 지급



김옥영 (문리 52)

/ 그때 그사람 /

Kishimosky를 기억하며

<김인수, 金仁洙 1902-1959>

내 고향이 어디냐 누가 물으면 물새 나르는 남쪽바다도 아니고 산 평이 알을 품고 빠꾸기 제철에 온다는 그런 고장도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내 나이 2살때 만주로 이사갔고 내 인생의 여명은 그곳에서 번져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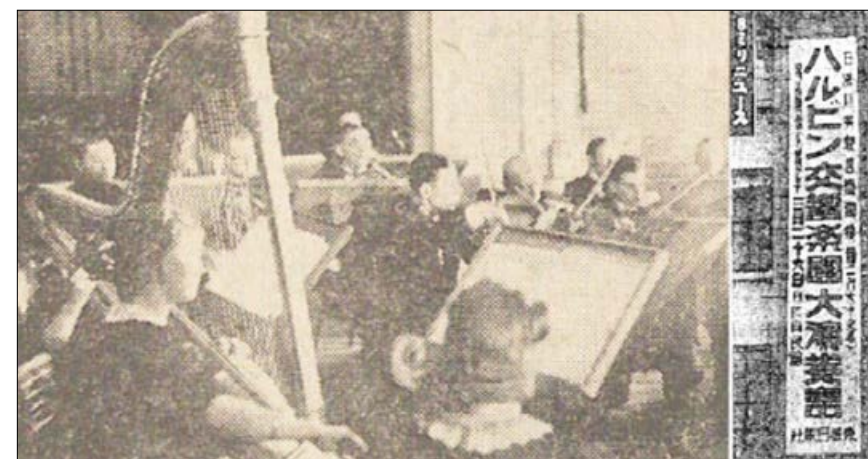
이로 건너갔다고 한다.

나의 부친은 미쯔비시 회사 하얼빈 지점의 부 지점장이셨다. 아버지는 상당한 classical music 애호자였기 때문에 Harbin Symphony Orchestra의 한국인 음악인들과 친분이 두터우시고 정기연주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특히 여름 야외공연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장을 하고 나가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주 후에 찾아오고 파티가 자주 있었다. 어머니는 여름에 말렸던 생선을 기름에 튀기고 각종의 러시아 소시지를 안주해서 대접하셨다. Vodka 술잔을 높이 들고 “스텐카 라진” 노래를 부르면서 페치카로 훈훈한 응접실에서 어른들이 취하면서 즐기는 것을 나는 잠도 안자고 훑쳐보곤 했다.



송화강(Sungari River 승가리강) 한가운데 '태양도'라는 섬이 있었다. 백계러시아인들의 동화책 그림같이 아기자기한 지그마한 별장들이 흰 자작나무 사이에서 엿보이고 만주인들의 눈발 옥도에서 야채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겨울이 되어 무서운 추위가 오더라도 아버지가 쌍 말이 끄는 썰매 마차에 온 식구를 태우고 낙타 털 담요 속에 쌓여 강 건너가는 나들이가 우리들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름에는 오케스트라 음악인과 그 가족과 함께 모여 고기잡이를 나



1909년에는 안중근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곳이 기도하고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군 731부대도 하얼빈에서 얼마 멀지 않은 장소였다는 사실은 우리 부모는 어린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러시아 혁명 당시 10~20만에 달하는 백계 난민이 하얼빈에 정착했었고 '국적과 인종의 진열장'이라고 불리 울만큼 여러 인종과 각종의 무리들이 혼잡하게 섞여 살았던 국제도시기도 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 망명자나 법을 어긴 죄인들의 피난처이기도 했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장사꾼도 있었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

갔다. 남자 어른들이 그물을 배에 쌓아 신고 배를 타고 나가 어린 손바닥만 한 생선이 그물 속에서 팼팼팼 뛰는 것들을 가지고 오면 부인들이 재빠르게 손질하여 일부는 매콤한 찜개를 끓이고 대부분은 햇벌에 말렸다. 나는 남동생과 함께 동네 야채밭에서 탐스럽게 익어가는 호박이나 가지들 훑쳐 농부와 요란스럽게 짓는 개에게 쫓기며 도망치고 어른들에게 생선찌개 맛있게 하시라고 갖다 드렸다. 손질한 생선은 만주 대륙의 오후 따뜻한 햇벌에 말리려 저녁녘에 돌아갈 때 짬 되면 바삭 마르고 있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집에는 Harbin Symphony Orchestra에 있는 한국 음악가들이 연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아저씨가 있었다. 우리들은 그 아저씨를 '키시모스카'라고 불렀다. 김인수라는 이름이 창시개명으로 일본이름 기시모또가 돼 버렸다. 꼭 러시아인처럼 채구가 큼직하고 코가 크고 눈이 이글이글 한 얼굴이 마치 러시아인처럼 보여 우리들이 그런이름으로 그 아저씨를 불렀다. 김인수는 오케스트라의 principal cellist 였다.

2살 위 나의 언니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 을따라 Harbin Symphony Orchestra가 Dvorak Symphony No.9 & From New World 연주에 김인수가 첼로 독주하는 것을 들었다 고한다. 떠들썩거리는 손님 가운데

는 검은 망토를 둘러 입은 창백한 패병환자 보구상이라는 젊은 바이어리니스트가 구석에 쪼그리고 함께 vodka 잔을 비우고 있었다. 러시아 소설의 비극 주인공 같은 그는 내 어린 소녀의 가슴에 미묘한 설렘을 느끼게 해줬다. 모든 조선 사람들이 창시개명을 했는데 그 사람만이 보구상, 박 씨라는 이름을 간직했고 어른들이 수군대고 말하는 것을 엿들어보고 그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고생하는 동안에 패병을 앓게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그 보구상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그 시절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다. 목숨만 건져 살아남은 전제민 보따리 속에는 사진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하얼빈 교향악단은 1908에 러시아 음악인으로 구성된 세계적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였고 한국 음악인들도 몇 명 있었고 우리나라 현대 음악계의 선구자 임원식(林元植 · 1919-2002)이 지휘자로 데뷔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39년 3월26일에 경성일보 초빙으로 연주회가 성대하게 열렸고 경성 시내에는 크게 들썩 거렸다고 한다.

1945년에 제2차 전쟁이 일본제국의 패전으로 끝나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다. 우리 식구도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와 하얼빈에서 친밀하게 지냈던 김인수는 서울에 돌아와 1945년 9월15일에 현재진을 중심으로 조직한 우리나라 광복 이후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 고려교향악단(高麗交響樂團)의 회원으로 활약했다. 1946년 임원식이 상임지휘자가 되었고 그 뒤 재정난 때문에 고난이 많았고 임원식이 미국으로 떠난 후 김인수가 지휘자로서나 소리스트로서나 자기 재산을 써가며 운영을 이어갔으나 재정은 해결 못하고 1950년에 서울시립교향악단으로 인계되었다. 그의 부인은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명동에 '신세계' 라는 다방을 경영했다. 폭음이었던 그는 명지휘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명동 어떤 술집에서 쓰러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Dvorak 의 'From New World Symphony' 의 cello 독주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키시모스카와 vodka 파티의 장면이 기름에 튀긴 생선 냄새와 함께 내이제 돌아갈 수없는 고향 하얼빈의 이국적 정서에 잠겨 저 먼 풍요로운 추억의 미로에서 내게 손짓하고 오는 것을 느껴본다.

/ 제언 /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서울대인의 이순신 사랑

-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



이내원 (사대 58)

'이순신 세계 교육'은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 형성된 한인 커뮤니티를 따라 설립된 한글·한인 학교의 한국계 학생들이 '위대한 실천형 스승'인 충무공 이순신의 강인한 불굴의 개척 정신과 국민을 사랑 하는 인성을 본받아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갖고 높고 크게 자랄 수 있는 인성적 기반을 갖출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 서울대와 이순신 교육의 연관성을 살펴 보면, 해방 직후 한국과 모교 국문학을 주도 했던 시인 가람 이병기 교수와, '조선 시가 사강'과 '국문학 개설'을 저술한 한국 국문학의 태두 조준제 교수가 모두 이순신 시가와 기록의 연구 교육의 개척자로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고, 1998년에는 공대 원자 핵 공학과 교수 박해일, 최희동, 배영덕, 김명섭 세 분의 공학자가 '이순신의 일기- 친필 초본에서 국역본에 이르기

까지'를 서울대 출판문화원 발행으로 발간하여 과학도들의 넘치는 이순신 사랑으로 새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어려운 시기를 만나 주춧했던 이 운동이 한 여성 동문의 '어려운 때 일수록 이순신 정신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담아 예년과 똑같이 \$2,000의 특지 지원, 분을 보이자 주변이 따라 같이 하는 모음이야말로 '서울대 정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 이순신 교육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제공하는 연간 \$1,500이 유일한 외부지원 이어서 몇몇 동문들의 희생적 기여가 없이는 지속이 어려웠다. 이러한 실정을 알게된 워싱턴 원로 동문들께서는 '어찌 이같은 공익 교육 활동을 몇몇 동문의 부담으로 맡겨 놓을 수 있는가? 심지어 일반 같이 하자는 뜻의 일기- 친필 초본에서 국역본에 이르기

여명이 조용히 호응해 주었다. 이에 이 취지를 동문 모든 분들께 알려, 일년 \$100이라는 편한 부담으로 이 정신교육운동이 활짝 피어나 해외 서울대인의 아름다운 동포 선도 운동이 되도록 지원 희망자를 모시고자 한다. 이 운동의 동아리 이름은 'SNUAA-USA 이순신 세계교육 동우회'로 가칭한다. 또한 동우회에서는 매년 연초 '세계 학생 이순신 글쓰기' 우수 당선작을 회원 여러분 소개하고 4계절의 이순신 기념일을 전후하여 그에 관련된 간편 자료를 전자 제공하여 이순신 이해와 재미를 더하기 위해 동문들의 Email 주소가 필요하다. 동문들의 정성은 세계 곳곳 한인촌의 한글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같은 동포의 따뜻한 온정으로 전달되어 한국민족의 든든한 연대감과 자부심으로 바람

직한 현지 인재로 자라는 보람으로 보답을 드릴 것이다. 또한 한인사회는 우리 미주 서울대 동문들의 정성을 읽고 '서울대 출신들이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는 평가로 보답하여 모교에 영예를 헌사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겠나 기대되기도 한다. 여러 동문들의 아름다운 동참을 기대한다. naewonlee@yahoo.com

후.원.방.법

(Payable to)
Yisunsin Alumni Institute
 (Address) c/o Woo Jin Lee
4107 Oxford Lane,
Fairfax, VA 22030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삶과생각 /

자전거 Virtues



양수진(간호대 80)

철벽지 산악 자전거 팀에 합류한지 이제 5년 쯤다.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혼자 타기도 뭐하고 마땅히 그룹도 찾질 못했다. 아이 키우라, 또 4년을 샌디에고에서 공부하며 일하며 몸은 이미 망가지도록 망가져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시작할 때는 그저 자전거 타는 것이 좋아서 조인했는데 금새 자전거의 매력에 흠뻑 빠져 버렸다.

의 균형은 계속 나갈때 지속된다. 멈추면 결국 썩고 치우쳐 사고를 내거나 우울증 만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게 되고 만다.

자전거는 Pain & Pleasure 이다. 지독한 오르막을 오르면서 심장이 터질것 같고 숨이 턱

에 차기 시작하면 고통스럽다. 아찔한 내리막의 장애물을 내려가면서 느끼는 공포감과 고통이다. 그러면서도 맘에 흥백 젖어 두르막을 끝까지 해내고, 짜릿한 내리막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기술까지 습득하게 되는 그 기쁨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속성

자전거는 인생이다. 자전거는 Self-Ignition이다. 생명현상인 생체 에너지를 소비하는 출발선에서 내가 페달을 밟아야 시작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 스스로 울음을 터뜨려 생명호흡의 시작을 알리듯이 한쪽발을 페달에 올려 힘껏 힘을 주고 재빨리 자전거에 올라 다른발을 차고 올리면서 안정에 없자 중심을 잡고 페달을 구르기 시작한다. 이때를 놓치면 시작할 수 없게되고, 바로 이때를 잘 포착하기위해 올라타는 배우기 걸음마를 시작하게 된다.

자전거는 Balancing 이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인생은 자전거와 비슷하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한번 시작한 페달질은 균형을 잡고 나가야 한다.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거나 크고 작은 사고를 내고만다. 움직이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을 track standing 이라 하는데 세계 기록을 알수는 없지만 결국 균형을 놓칠때가 오면 페달을 굴려야 넘어지지 않는다. 삶



을 갖게한다. 중독증인지도 ㅎㅎㅎ 우리의 삶도 고통과 기쁨의 연속이다. 고통을 견디는 힘은 결과를 알기 때문이다. 아이를 해산하는 엄마의 고통이 그렇고 목적을 향해 힘껏 쏟아붓는 현재의 노력이 그렇다. 물론 억압적 고통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억압의 고통상태는 여기서 제하기로 한다.

자전거는 Speed Control 이 필수적이다. 좀 쉬운 곳은 속도를 내려 달릴수 있고 어려운 곳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여야한다. 우리네 인생도 순탄하게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서행할 하며 생각해야 한다.

명목적 기대를 하며 돌진하거나, 남의 뒤를 쫓아가선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어부지리도 통하지 않는다. 각 개인에게 자신에게 맞는 pace가 있다. 가끔 도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신만의 속도를 즐길수 있어야한다. 황새를 쫓아가는 뱀새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한다. 황새는 성큼성큼 멀리 가는 듯하나 뱀새가 볼수있는 작은것의 아름다움을 스쳐 지나게 될것이다. 자신만의 방법과 속도를 갖는것은 인생을 즐기는 이치를 알게 해 줄 것이다.

철벽지는 철벽 형제 자매로 불릴 만큼 매너들이 좋다. 뒤풀이로 만나면 운동후라서 인지 화기애애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내대면 뒤풀이를 못했지만 원래 밖에서 하는 운동이라 공원에서 가져 온 음식들을 나누며 뒤풀이를 계속한다. 물론 뒤풀이 시간이 엄청 짧아지긴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건강도 좋아지고 산악자전거를 통한 운동효과와 자연 친화하기의 즐거움이 넘친다. 두 바퀴의 신나는 인생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NASA '기적의 사나이'

“내 성공의 이유는 새벽기도의 힘”

/ 사람, 사람들 / 정재훈 박사 (공대 64)

정재훈 박사는 2004년1월 화성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탐사선 스프리트호와 오퍼튜니티호의 핵심부품인 극저온신경조직 및 1562 종류의 열장치를 개발해 세계적인 우주과학자로 주목받고있는 한국인 과학자 자랑스런 동문이다. 또한 Covid-19로 인해 동문회보 광고후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주동창회 회보에 선뜻 고액의 후원금을 보내 주기도 했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서울대 자랑스런 동문들이 각계각층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지 항상 감탄을 하게된다. 정재훈 박사 또한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동문으로 기억될 것이다.

<백옥자 조직국장>

- 미국에 오지게 된 이유와 과정은
1977년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돼 인류에 공헌하자'는 고등학교 때의 꿈을 되새기며 미국으로 이민왔다. 아내 정경숙 권사와 2세, 5세 어린 딸을 데리고 단돈 4,000달러를 가지고 과감히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첫 직장은 테이코 엔지니어링이었다. 시급 4달러 25 센트를 받는 말단 제도사로 입사, 3년 만에 Chief Engineer, 7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 2000년도에 창업자 찰스 테일러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아 CEO가 되어 회사를 급격하게 성장시켰다. 이 모든 이면에는 내가 30대 중반 즈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내와 함께 드린 새벽기도가 힘이 되었다.

해결했다. 그 이후 발사되는 모든 우주 왕복선에는 우리 회사가 생산한 Solid Rocket Booster Field Joint Protection System(로켓 열보호장치)를 설치해야만 발사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2003년 2월 1일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대기권 진입도중 폭발하여 우주비행사 7명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무려 여섯 차례나 NASA 의 문을 두드렸다. 왜냐하면 나의 아이디어는 새벽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해결책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결과는 제1안과 제2안이 모두 실패, 결국 나의 해결 방안이 최종으로 채택되어 제가 개발한 결빙 방지 시스템을 장착하고 2005년7월 우주왕

인간의 화성착륙과 달표면 재착륙 계획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 내년에 발사 될 우주 망원경 James Web Space Telescope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의 모든 극저온용 핵심 신경도 나의 개발품이다. 자유진영에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의 거의 90%는 모두 우리 회사가 개발한 장치를 사용하여야만 예상된 수명을 유지할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나온 지혜였기 때문이다.

“세계적 엔지니어로 인류에 공헌” 고교 첫 꿈 간직

시급 4.25달러 말단서 7년만에 부사장, CEO로

30대 중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와 새벽기도

- “기적의 사나이”로 불리게 된 이유는
1986년 1월28일 미국우주산업의 대명사격인 챌린저호 우주왕복선이 발사 1분 12초 만에 공중폭발하여 초등학교교사를 포함한 우주승무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사건이 발생하며 미우주 개발계획에 치명타를 당했다.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열정적개발에 성공하여 1988년 9월 디스커버리호의 발사에 성공시킴으로서 미항공우주국(NASA)뿐만 아니라 전 미국인의 자존심을 되찾게 했다고 생각한다. 실시간으로 우주선이 폭발 되는 장면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드리는 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지혜와 용기를 주셨다. 챌린저호 참사는 고체연료로켓트 이음매 부분의 O-Ring이 추운 날씨로 인하여 열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는데 내가 개발한 열보호장치가 NASA로부터 채택되어 이 문제를 완전히

의 생명을 잃은 사건때에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컬럼비아호 사고의 원인은 외부연료탱크에서 떨어진 얼음조각 때문에 생긴 우주왕복선 날개부위의 균열때문이었었는데 이 문제도 내가 개발한 결빙방지 시스템으로 해결되었다. 이때 NASA 로부터 '기적을 만든 사람 (Miracle Maker) 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 당시 나는 6시간을 비행해 NASA를 방문, 나에게 문제 해결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관계자가 난색을 표하며 '이미 수십명의 석학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1 방안과 제2 방안이 거의 90%가 완성되어 아무리 좋은 나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이미 너무늦었다'고 말했다. 계속 전화연락을 하니까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복선 디스커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기적의 사나이 정재훈 박사"로 미국의 자존심을 두번이나 지켜준 장본인이 된 것으로 이름지어졌다.

- 직접 개발한 제품을 소개한다면
세계의 우주 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기여 국제 우주정거장용 SPDМ 로봇의 전체 내부 신경조직을 개발 제작하였고, 화성에 착륙한 로버 탐사선 Sojourner, Spirit, Opportunity, Curiosity, Perseverance 등에 사용된 극 저온 신경조직 케아불과 수없이 많은 열 조정장치 와 최근에는 NASA로부터 의뢰를 받아 차세대 우주발사체 (Space Launch System)와 유인우주선 (Orion)용 여러 종류의 System들을 성공적으로 개발 제작하여



아내 정경숙 권사와 함께

하 523-24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뒤로 -”을 목상하던 나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을 때마다 적군을 네 손에 붙이리라고 허락만 하셨는데 오늘날은 반대로 뽕나무 뒤로 한 발 후퇴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나는 그 중역의 해고를 취소했다. 상대방은 해고통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회사를 고소할 완벽한 준비를 했었는데 의외의 답을 듣고는 그 앞에 순복했고, 스스로 반성하고 종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잘 하다가 조용히 회사를 떠난 일도 있어 하나님의 능력에 많이 의지한다.

리하고, 우주 정거장용 로버트 팔 신경장치의 개발때에도 똑같은 은혜다.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쓰임만 받으면 된다. 현재 직업은 나의 두번째 임무이다. 나의 첫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나라 전파에 있다.

-나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 보며
과학이란 무엇일까? 피조물이 만들어낸 학문적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다만 그 과학을 통하여 기업을 경영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도릴 따름이다.

한면 앞에는 제가 뒷부분은 아내 정경숙 권사가 이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늘 나를 위하여 공격적인 격려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영적인 공동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다음번으로 존경한다. 오래전 작은공주님 (카니)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인 세상에서 하나님과 부모 빼놓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라고 하니 언니 이름을 쓰고 (줄리) 언니를 존경한다고 했다. 가정에서 서로 존경하고 격려해주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우리가정은 행복하고 기쁜가정이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의 시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즐긴다. 우리 가정만큼 즐기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정을 신뢰한다. 아빠같은 배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었다. 결국은 모두 결혼하여 만족해 하고 있다. 큰 공주님 가정은 아들이 하나이고 작은 공주님 가정은 아들 둘 딸 하나이다. 네명의 손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공주님 Julie Chung은 현재 미국무성 외교관으로 Bureau of Western Hemisphere(북미주와 중남미 대륙 관장부서)에서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수석차관보)로 근무중이다. 작은 공주님 Connie Chung Kim은 San Francisco에 있는 KCBS 방송국에서 세번째 아이를 낳을 때 까지 Producer로 근무 했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바라고 싶은 점
수고하며 애쓰시는 동창회 임원들께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서울대 후배동문들과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기회가 주어질때 마다 한국사회와 젊은이들에게 깨끗한 성공을 꿈꾸라고 외친다.

NASA 화성탐사선 핵심부품 열장치·신경조직 개발

최근 화성착륙·달표면 재착륙 계획 등 활발한 활동

“말씀과 기도로 얻은 셀 수 없는 응답이 성공의 열쇠”

- Tayco 우주개발사를 소개한다면
1971년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Charles Taylor에 의하여 창업되어 소규모 Aerospace용 온도측정 센서와 열발전기 제조회사로 시작하여 1977년까지 직원이 30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150명 직원의 하이텍 우주개발사로 발전하였다. MIT 대학출신 등의 우수 두뇌는 25명정도 있다. 현재 자유진영에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의 90%에 자체 제어 로켓트용 열장치를 개발 공급하고 있고 거의 모든 NASA Project에 관여하고있다. 아시아와 유럽등의 인공위성에도 거의가 자사의 제품이 쓰여진다.

- 그동안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해오면서 소개할 만한 비화나 숨겨진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빼 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 참사이후 그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열장치 개발아이디어를 제출하여 NASA로 부터 채택되었을때, 그 당시 모든 자사 직원들과 주위사람들이 이루지도 못할 어려운 일을 맡았다고 부정적이었고 개발착수에 반대하였다. 보통 과학적 상식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나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한 기회를 주셨다고 믿는다. 이번도 그

-가정에서도 훌륭한 가정이며, 행복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에게 수여하는 'Long Beach Family Life Award'를 받은것으로 안다. 가족관계와 자녀관혼은
아내 정경숙 권사를 아직도 오드리현빈 이라고 부른다. 대학시절 미팅으로 처음 만난 날 마치 오드리현빈이 앉아 있는 것 같았기에 붙여진 애칭이다. 아내 정권사(노정숙여사)는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미국 가든그로브 도서관에서 사서로 15년간 봉직했고 나와 함께 복음대학 고신대학원에 들어가 함께 신학을 공부, 부부가 함께 목회학 석사를 받기도했다. 이렇게 하나된 우리는 함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전파에 앞장서 왔다. 교회에서 초정을



2004년 MBC 뉴스데스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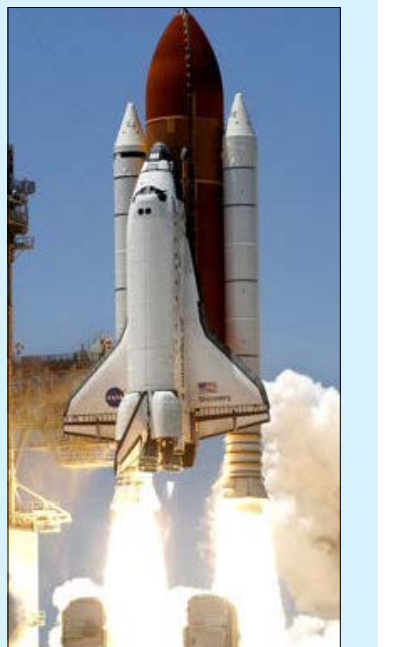
아내, 딸들과 함께

정재훈 동문은

- 1978-현재 President & CEO, Tayco Engineering, Inc.
- 1978-현재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장로

학 력

-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우주열공학박사
- M.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기계재료공학석사
- B.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공대 금속공학과, 서울사대부고
- M. Div., Evangelia University, California, 가주복음대학교 고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디스커버리호

수 상

- NASA-SLS 차세대발사체-Orion Contribution Recognition (LM-June 2016, Boeing-Mar 2018)
- NASA James Web Space Telescope Contribution Recognition (Mar 2017)
- Korean American Leadership Foundation: Proud Korean Award, 제8회 자랑스런 한국인상(Aug 8, 2013)
- NASA-ATK Space Shuttle RSRM Contribution Recognition (Dec 2009)
- Boeing ISS 2006 Exceptional Company Performance Award (Sept 2007)
- NASA Space Shuttle Award (Oct. 2005), NASA Honor Award (July 18, 2013- published)
- 자랑스런 서울공대동문상(June 2004) 서울사대부고동문상(Dec2013)
- NASA Mars Exploration Rover Achievement Award (May 25, 2004)
- 말말상: 자랑스런 한국인상 (May 2, 1998)
- NASA Silver Snoopy Award (Sept. 1993)
- Long Beach Family Life Award (Feb. 1990)
- Korean Government Awards (1988, 1990)



이희백(의대 55)

/ 삶과생각 /

이중잣대②

<지난호에 이어서> 소련 흐루시초프 가 미국을 방문했을때 그는 갖은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정작 와보니 비판보다 압도적으로 우호적인 태도에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호적인게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나만의 미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이 사회엔 더 많은 불만에 찬 포스터가 거리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다는 사회에 기차간 온도가 85인데도 아무 불평이 없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라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서도 불평하지 않는게 미국인의 문제라는 Buckley가 정반대로 불평하지 말라고 한적이 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자.

때는 1965년 2월 18일, 장소는 영국 Cambridge Union 이다. 1965년은 미국인권 운동이 거셌던 해로서 흑인들이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Voting Rights Act 통과를 위해 싸우던 해이다. 이 법의 통과를 저지 하려는 백인들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지고 많은 흑인이 투옥되었다. Martin Luther King Jr.도 그중의 하나다. 이때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흑인 작가이자 민권운동가인 James Baldwin을 Cambridge Union 이 연사로 초대했다. 계기는 그의 세소설 "The Fire Next Time"이 큰 화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Baldwin은 자기와 견줄만한 토론 상대자라면 초대에 응하겠다고 통보했다.

오늘날 새로운 보수논객으로 등장한 Yale 출신 William F. Buckley가 선출되었다. 토론의제(motion)는 "the American dream is at the expense of the American Negro"였는데 Cambridge Union 역사상 최대의 관심을 끌어 700명이 넘는 학생이 강당을 메우고도 넘쳐 강당외에 closed circuit TV 까지 설치하고 BBC가 실시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했다. 학생을 대표하여 찬성에 Heycock, 반대에는 Burford가 나와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각각 설명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나 생각하고 Baldwin과 Buckley의 인물소개와 중요 논점만 적어보겠다.

Baldwin과 Buckley는 15개월 사이를 두고 출생한 동시대 인물이다. 그러나 그들의 출생 배경과 성장과정은 전혀 다르다. Baldwin은 Harlem 빈민가에서 출생해 평생 Negro(그때는 지금과 달리 Negro 라고 불려도 되는 시대였다)이기 때문에 당하는 극심한 차별과 빈곤속에서 자랐다. 반면에 Buckley는 Connecticut 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때부터 개인 음악선생을 들만큼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영국에 건너가 prep school 교육까지 받은후 Yale을 나왔다.

Yale대학 재학중 "God and Man at Yale"이란 책을 출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따라서 이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념은 다를수 밖에 없다. Baldwin은 작가로 두각을 나타내 Harlem의 삶과 인간을 다룬 소설과 수필을 썼다. 그의 작가로서의 명성은 자연히 그를 중요한 인권운동가로 등장시켰다. 그는 Cambridge Union 연설에서 "I pick the

cotton, I carried to market, and I built the railroads, under the someone else's whip, for nothing. For nothing"이라고 "I"를 강조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I"는 "We-Negro"를 말한것이고 for nothing 이란 아메리칸 드림은 값싼 우리 노동력에 의해 성취된것임을 선언한것이다. "나는 선교사들의 구호대상자가 아니다. 나는 이나라를 세운 사람의 하나다. 그리고 미국인구의 9분지 1을 차지하는 미국인을 계속 아메리칸 드림에서 제외하는 한 서방세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의자에 앉자 장내 전원 이 기립 일본 이상 박수를 보냈다.그는 이 찬사를 받기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에 일어난 Buckley 는 Baldwin이 제기한 흑인 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 역사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만 국한된게 아님을 지적했다. 그런 예로 영국도 애란인들의 독립요구를 폭력으로 막은 사실을 들었다.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는 12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출중한 졸업생 Erasmus의 신념을 문제삼아 그에게 영국인과 똑같은 투표권을 부여할것인가를 가지고 의견이 양분되어 격렬한 토론을 벌였던 일을 상기 시켰다. 미국 Negro의 빈곤에 대해서는 Baldwin 과는 다른 밝은 흑인들의 삶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Negro들의 95%가 물질적인 풍요를 즐기고 있으며 1900년에 3,500명이던 Ngro 의사수가 1960년에는 3,900명으로 무려 400명이 증가 했다는 통

계수자를 들어 그의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Negro들의 지위향상을 가능케한 우수한 서구 Judeo-Christian 문화는 무시하고 Baldwin은 "The Fire Next Time"에서 말하듯 서구문화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의 연설은 가끔 조롱섞인 웃음도 자아내고 예리한 질문도 나왔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투표에 들어갔다. 결과는 찬성이 544표 반대가 164표로 가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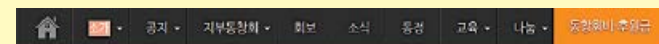
한마디로 Buckley는 400년 동안 겁쟁이, 소심쟁이로 살아온 Negro들에게 계속 불평하지 말고 살라는 소리다. 그의 자서전에서 "Why Don't We Complain?"하고 말한 그가 Cambridge Union에서는 "Why Do You Complain?"이란 격으로 말했던것은 그의 "We"에 Negro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uckley만 그런가? 아니다 우리 다 그렇다. "We"에 모든 사람을 포함 시킨것을 보여준 사람은 예수뿐이고 신만이 그럴수 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We"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킬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중잣대자다. 우리는 다만 "We"에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뿐이다.

<참고문헌> MILES GONE BY; a literary autobiography by William F. Buckley Jr THE FIRE IS UPON US: James Baldwin, William F. Buckley Jr, and the Debate over Race in America by Nicholaas Buccola

동창회비 납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u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가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 1.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2.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 3.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u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삶며생각하며 /

까마귀를 검다하는 당신은 색맹



정훈택 (상대 61)

얼마 전 나는 까마귀 두 마리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구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다. 그날은 가을 주말 오후였다. 집사람과 함께 필라델피아 교외 나버스 타운(Narberth Town)의 아깃자깃 좁은 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저녁약속 시간에 맞추어 가는 길이다. 역사 깊은 대학촌 마을이라 빌딩들은 3층을 넘지 않았고 가을을 흠뻑 먹은 가로수는 상점들의 소 원도에 비추어져, 화장대 앞에 앉은 젊은 여인처럼 예뻐했다. 차도 많지 않아 집사람에게 운전권을 부탁하고 나는 옆에 앉아, 창가를 스치는 만추의 풍경에 푹 빠져 있었다. 문득 저 앞에 새까만 물건이 길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물건이 아니고 생명체였다. 움직이는 방향은 길 가장자리 쪽이다.

"어, 저게 뭐지?" 나는호기심에 몸을 앞으로 내밀고 주시했다. 차는 계속 다가갔다. 우리 차와 그 까만 물체와의 거리가 금방 가까워져 갔다. 그것은 까마귀였다. 한 마리가 아니고 세 마리가 한데 엉켜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중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한 듯 했고 성한 두 마리가 다친 놈을 길가 쪽으로 밀어내는 중이었다. 까만 날개를 펴들거러 땅에 먼지를 일으키며 필사적으로 그 동료들을 밀고나가는 중이었다. "어, 어, 스톱, 스톱!" 나의 외침에 집 사람은 재빨리 핸들을 돌려 간신히 그들을 피했다. "후유"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이제 내 차는 그 까마귀들을 뒤로하고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몸을 비틀어 뒷창으로 내다 보았다. 한 문치로 어우러진 세 까마귀가 간신히 길가 쪽 안전한 곳에 도달한데까지는 보았다. 더 이상은 뒷차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저런 사고가 났지? 짐작컨대 길 가운데에 다람쥐 같은 동물의 시체가 있어, 세 친구가 같이 정신 없이똥이 먹고 있는 중, 빠르게 달려 오는 차에 한 놈이 미처 높히 날지 못하고 차체에 날개를 부딪혀 상한 게 아닌가 추리해 보았다. 길 한 가운데로 툭 떨어져 허우적 거렸겠지. 나머지 두 마리가 달려들어 친구를 길가 쪽으로 밀고 끌고 하는 중에, 아마 우리 차가 그 현장에 도착했을 것이다.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 차가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그 세 놈 중 어느 한 놈도 '나 먼저 살고보자하고, 날아

도망가지를 앓았다는 것이다. 가끔 동네 산책하다 보면 새끼 새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의례 주위 하늘에 엄마새 아빠새가 빙빙 돌며 안타까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한 두번 있지만, 이런 극적인 광경은 처음이었다. "다행히 셋이 때죽음은 면했지만... 그 부상 병을 나무 위까지 어떻게 올려다 놓지?" 걱정이랄까 의문은 계속 꼬리를 문다. 사실 나는 전부터 까마귀를 좋아하지 않았

귀들이아마로 몇 천 년을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해온 친구였는데 말이다. 미국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농부들은 까마귀가 곡식을 쪼아 먹는다고 생각하고, 모두 나가 까마귀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 1940년 일리노이주의 환경 보호국은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면서까지 해서 32만 8천 마리의 까마귀를 죽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 해부터 각종 해충이 들끓기 시작했다. 마침

도 으뜸가는 짐승이다"라고 겐조스만 보고 판단했던 내가 얼마나 경솔했던가.

고전을 찾아보았다. 우리 조상 연암 박지원 선생은 아주 세밀히 적어놓으셨다. "소인(小人)들은 백로를 내세워 까마귀를 비웃는다. 그러나 저 까마귀를 자세히 보아라. 날개가 그보다 더 검은 것이 없긴 하지만, 문득 자세히 보면 부유스러운 금빛이 나다가, 다시 초록색으로 반짝이기도 하고, 햇빛에 비치면 붉은색으로, 날아오를 때는 눈이 아물거릴 정도로 비취색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푸른 까마귀라 불려도 좋고 붉은 까마귀라 명명해도 좋을 것이다. 꼭이 정한 색깔이 없는데, 사람들은 못나게도 어느 한 색깔로만 규정해 버렸구나." 이 말은 까마귀가 검은 것은 사실이지만 광선 상태에 따라, 또 움직임에 따라 색깔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말이다. 과연 연암선생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분이시였다.



우리 전래 동화 '견우직녀 이야기'에도 까마귀는 자기 희생을 하며, 좋은 일을 하는 새로 등장한다. 7월 7석(음력)이 되면 이 두 연인을 만나게해 주기 위해 까마귀들이 모여 자기들 몸으로 하늘다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지나면 까마귀 머리에는 털이 다 빠져 '대머리 까마귀'가 된단다. 견우직녀가 까마귀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 만났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본 까마귀들을 생각하니 절로 후회스러운 생각이 떨칠 수가 없다. 그날 저녁 그 까마귀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내가 차를 세우게 하고, 다가가 그 까마귀 날개를 고쳐주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적어도 나뭇가지 위이라도 올려놔 주었더라면... 그런데 까마귀와 내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선한 뜻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지? 답답하다.

지금 이 시간 지구위에 사는 생명체임에는 나와 까마귀가 다름이 없으려면, 우리 사이에는 서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랑', '우정'같은 따뜻한 마음조각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 아닐까? 언제인가는 너, 까마귀나 우리, 사람이나 똑같은 사랑의 끈으로 매어져 살고 있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사랑'을 꼭 간직하고 살자꾸나.

다. 그 먹물같은 몸색이여 못생긴 부리, '꺼억' 불길한 울음 소리, 스레기 차가 오는 날 내놓은 쓰레기 백을 마구 찢어내 다 헤쳐놓는 똥방곤...미워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그날 본 까마귀는 우정과 희생의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그날 밤 잠에 와서 까마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까마귀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그건 나쁘지 않지... 울씨넨스런 겨울아침, 고목 가지 위에 앉아, 서리 내린 마을 들판을 굽어보던 그 불길한 까마귀들. 까치를 유독 편애하는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의 색깔과 울음 소리, 썩은 고기를 먹는 식성을 미워해 보이는데로 마구 죽였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그 까마

내 조류학자들을 불러 연구를 시켰다.그 결과 옥수수를 쪼아먹는 줄 알았던 까마귀가 실은 옥수수에 붙은 해충을 더 많이 잡아먹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까마귀에 대해 연구를 할수록 더욱 놀라운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어떤 새 보다 더 가족적이고 정과 의리가 두텁다고 한다. 어미 새가 늙어 날지 못하면 자기 새들이 먹이를 물어다 봉양을 한다. 그것도 삼 년 내지 사 년까지도....우리 나라에도 옛말에 '반포지효(反哺之孝)'란 말이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것과 같은 효도'라는 풀이다. 이제 나는 내 경험담을 하나 더 첨부해야겠다.

"까마귀는 효성 뿐만 아니라 우정에 있어서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이태상(문리 55)

곰할머니께 비나이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제3선거구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테드 요호(Ted Yoho, 65세)가 AOC(Alexandria Ocasio-Cortez, 30세) 뉴욕 제14선거구 민주당 하원의원과 수도 워싱턴 국회의사당 청사 건물 층계에서 범죄와 경찰행위에 대한 언쟁을 벌인 후 떠나면서 'a fucking bitch'이라고 욕하는 걸 한 기자가 들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이 된 그녀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다.

지난 7월 23일 목요일 미국회 의사당에서 요호 씨 같은 몰상식하고 저질스러운(남성) 족속(族屬)들에게 그녀는 일장(一場) 훈시(訓示)를 했다. "요호 씨는 아내와 두 따님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요호 씨의 작은 따님보다 두 살이 어립니다. 나 또한 어떤 누구의 딸이지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나의 부모님께 내가 두 분의 딸이고 내 부모님께서 내가 남자들의 언어 폭력을 포함한 성폭력을 용납 하도록 키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015년 출간된 우생의 출저(拙著) '무지코 칸타타' 첫 장에서 내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고(告)하는 글을 아래와 같이 옮겨본다.

요즘 한국에서 여성 비하와 여성혐오가 전염병 번지듯 한다는 기사를 보고 팔십 노인이 같은 남성 동포 여러분에게 간곡히 한마디 하고자 함이다.

남녀성별 불문하고 우리 모든 생물의 고향은 하늘(아버지)과 그 정기(精氣) 받은 땅(어머니)의 모태인 바다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늘님'과 '땅님'이 결합한 '하늘님'이 설혹 성별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님 아버지'라 할기보다 '하늘님 어머니'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고찰해 볼 때 여성을 여신(女神)으로 숭배하고 모계사회로 출발했다 하지 않는가. 그러다가 돌연변이의 자폐아(自閉兒)가 태어나 '여신은 없다고 선언하자 초심(初心)을 잃게 된 인류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퇴행(退行) 퇴화(退化)하면서 평화롭던 세계가 폭력과 전쟁으로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 남성의 씨를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여성의 모유를 먹고 자랐다. 물론 부성애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부성애라도 하찮은 모성애의 억만 분의 일도 못되고, 아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엄마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아이들이다.

이것은 인간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세계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지인이 보내준 유튜브 영상을 보니, 수탉은 저 혼자 먹기 바쁘는데 암탉은 모이를 쪼아 병아리 먹이느라 정신 없었다. 그런데 어찌 우리 남성이 우리의 영원한 엄마, 누이, 딸, 애인, 연인, 여신을 육보일 수 있던 말입니까. 정말 참으로 천벌(天罰), 지벌(地罰), 인벌(人罰)을 받을 일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고향을 잊지 말고, 언어

를 회귀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궁창 오물통에 빠진 채 문전걸식하다 문전객사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무지개를 올라타고 하늘을 날 코스모스바다로 돌아가자.

정, 남성들이 끝끝내 개과천선 못하겠다면 최후의 방책(方策)으로 극약처방이라도 있어야 하리라. 그래서 2016년 출간된 출저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라(Fill Your Heart With Love)'의 28장(Chapter 28): '윤동주와 마광수, 사마귀 타령'을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다.

"특히 간절히 빌고 바라건대 교미 후에 수놈을 잡아먹는 사마귀(praying mantis)처럼 전쟁과 폭력을 일삼는 모든 남성을 성교(性交) 후엔 인정사정(人情事情) 없이 잡아먹어 치울 여성들의출현을 죽도록 고대해 마지

Evolution)'의 저자 레오나드 쉬레인(Leoanrd Shlain 1937- 2009) 박사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욕망의 부조화를 탐구해 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약 15만 년 전부터 인간 두뇌가 커지고 다른 동물들처럼 기는 대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 신체구조가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남자에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여자에겐 큰 위협부담이 되었다고한다. 큰 아이를 협소한 질을 통해 출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여성은 배란 주기에 섹스를 본능적으로 기피하게 되고 남성은 더 굶주리게 되었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쉬레인 박사는 그의 첫 저서 '예술과 물리학(Art & Physics: Parallel Visions in Space, Time & Light, 1991)'에서 예술이 언제

주방됐던 여신이 돌아오고 시각적으로 구전적으로 인류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다.

지난 20세기의 대표적인 중국 문필가 임어당이 지적했듯이 서양문명이 남성적이고 동양문화가 여성적이라면 평화와 사랑의 화합작용으로 생명을 만드는 동양의 음기가 전쟁과 폭력의 파괴행위로 목숨을 앗아가는 서양의 양기를 다스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치하고 상스러운 남성인류(mankind)가 어서 사라지고 성숙하고 자비롭고 고상하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여성인류(womankind)가 부활하는 코스미안시대(Cosmian Age)를 열어보리라.

1993년 바티칸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조치를 받은 신학자로 미국의 도미니코 수도회 신부 매튜 폭스는 그동안 68개국어로 번역되어 수백 만 권이 팔린 '원복(原福 Original Blessing, 1983)과 '우주 그리스도의 도래(The Coming of the Cosmic Christ, 1988)'를 포함한 35권의 저서를 통해 신(神 God)을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 부르며 인간의 '원죄(原罪 Original Sin)'가 아닌 본래 면목(本來面目), 본래성불(本來成佛)로서의 본래축복인 '원복'을 주장한다. 따라서 그의 주된 관심사는 공해(公害)로부터 자연환경 보호와 사회정의의 구현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인류와 자연의 신비로운 기원과 내력을 부정하는 남성지배, 인간중심, 그것도 백인위주의 권위와 특권이란 보수적인 전통을 보존코자 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것" 이라고 파계승(破戒僧)이 된 데 대해 그가 한 말이다.

"습기(濕氣), 그것이 바로 삶이며 생명이다. 늘 축축하게 젖어있고 변하는 것이. 사람이 고 집단이고 간에 건조해지면 굳어져 굼이 가고 부스러진다. 그러면 파시즘(fascism)이 기어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민속신앙의 마법을 쓰는 마녀나 아프리카 토인부락의 복치는 고수(敎手)나 아메리카 인디언 마법사나 동양의 무당들을 서양의 신부나 목사

와 동일시하고 이들 모두 다 인간의 영적(靈的)인 영성(靈性)을 다루는 사람들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시 말해 '문화인'과 '미개인'이 따로 없다며 어찌된 '미개인'이 되레 인간 심신(心身)의 공해(公害)를 모르도록 축복받아 개명한 사람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런데 그 더욱 신기하게도 그의 첫 저서로 그의 처녀작(총각작)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은 그 제목이 '음악적으로 신비한 곰 한 마리가 되는 것: 미국식 영성(靈性) On Becoming a Musical, Mystical Bear: Spirituality American Style, 1976)이다.

아, 옮겨니, 우리 모두 어서 단군신화로 돌아가야 하리라. 세계 인류 모두가 말이어나. 아, 정녕, 단군 할아버지, 아니 우리 곰 할머니 만세로다.



Loon Lake, New Hampshire, USA <조리개 F 11, 샷터스피드 1/250초, ISO 320, Focal Length 61mm>



나두섭(의대 66)

/ 살며 생각하며 /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것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지적 생각을 한다. 생각함으로써 나는 존재한다고 말할 철학자도 있다. 사시사철 생각을 하지만 가을에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고 여름에는 그것들이 번창하는 것을 보다가 가을이 되면 결실되어 수확하는 것을 보게된다.

찬바람이 솔솔 불게되면 나무잎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을밤이 깊어가듯 생각도 깊이를 더하게 된다. 생각은 자유분방한 것이어서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경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가지 생각 중에 사람에게 관한 생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은 어디 있는줄도 모르지

만 어린 시절에 같이 놀던 친구들. 좀더 앞서 가려고 경쟁하던 학창시절의 친구들. 지금은 강렬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때는 온 세상과도 바꿀수 없다고 생각했던 초롱한 눈동자를 지녔던 여자 친구들. 이야기만 꺼내도 눈시울을 젖게하는 키워준 부모의 생각. 운 좋게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젊었을 때의 아내, 철없이 자라던 자식들에 대한 생각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제는 생각해봐도 더 새로운 것은 없다. 해야 할 경험은 거의다 하였고 가을철 같이 결실하는 일만 남았다.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지금까지 하던일에서 은퇴하는 것은 서로 비교할수 있을 것 같다.

가을이 되어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푸르던 나무잎들은 붉은색, 갈색, 노란색

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동안은 잘 어울려 지내나 했더니 힘이 진하여 하나 둘씩 떨어진다. 나무를 황홀한 색깔로 바꾼 단풍의 빛은 저무는 해가 강물위로 떨어질때 반짝이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무색하게 한다. 낙엽이 떨어진다고 나무의 아름다움이 끝이난 것은 아니다. 노랗게 깔린 은행잎의 낙엽을 밟으며 거니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의 하나이다.

뜨겁던 햇살은 짙어가는 낫길이에 힘을 잃어가고 조금씩 빨리오는 어두운 밤은 깊어만 간다. 길어지는 밤에 책을 읽을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다 해본것들이 아닌가? 차라리 밖에 나가 싸늘한 공기를 마시며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나

간 일들에 대한 생각이나 마무리해 보는게 어떨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이해가 지기전에 외동딸을 시집보내려는 엄마의 다급한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하는듯하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면 남아 있던 마지막 잎새들도 떨어지겠지. 그렇다고 좋은 계절 다 끝난것은 아니다. 겨울이와도 그나마 대로의 운치도 있고 흰눈으로 뒤덮힌 조그만 오솔길을 그림던 친구와 같이 걸어도 좋다.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반복되는 것. 아쉬워하기 보다는 차라리 곱게 보내주고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아련한 추억을 되새겨 보는 것이 어떨까?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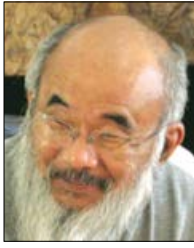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시오.



장소현 (미대 65)

▲아트테이너, 예술가와 연예인

조영남, 하정우, 심은하, 김혜수, 유준상, 구혜선, 원빈... 가수 나얼, 솔비, 개그맨 겸 배우 임하룡...

이들의 공통점은? 그림 그리는 인기 연예인들이다. 그저 취미로 그리기도 하지만, '가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화가 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그림 그리는 연예인을 '아트테이너'라고 부른다. 아티스트와 엔터테이너를 합성한 한국어 신조어다.

물론 아트테이너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서양에도 많다. 예를 들어,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가수 밥 딜런, 비틀즈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 배우 조니 뎀, 가수 데이빗 보위 등... 영화배우 겸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그림을 즐겨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화배우 안소니 퀸, 앤소니 홉킨스 등 많은 연예인들이 전문가 수준의 그림 솜씨를 자랑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문인, 음악가, 정치가 중에서도 그림 솜씨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적지 않다. 정치가를 예로 들어보면, 아들 부시 전 미국대통령, 히틀러, 처칠 영국수상,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김종필 전 국무총리 등...

이처럼 연예인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예술 장르 사이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직업인데, 연기나 목소리로 보여주던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미술은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유로운 측면이 많아서 연예계 생활로 받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이미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 매력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른바 힐링 효과 또는 치료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예술을 전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서 그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감상하는 일반인들 쪽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의 작품을 감상하며 공감을 느낄 수 있는데다가,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미



조영남 그림



배우 하정우와 그가 그린 그림

술을 생활과 가까이 해주는 효과도 있다. '대중 미술의 저변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다.

▲예술가들이 연예인을 닮아간다

아트테이너가 대접받는 배경은 인기와 힘입어 이들의 작품이 잘 팔리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작품이 유명세를 넘어 작품 자체로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조영남의 작품이 비싸게 팔리는 까닭은 간단하다. 유명

인의 그림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돈 냄새가 나니, 화랑이나 경매 등 미술시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트테이너란 말은 동전의 양면 같은 속성을 갖는다. 연예인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다른 측면은 예술가가 인기를 쫓으며 연예인처럼 변해가는 현상이다. 참으로 미묘하고 복잡하면서 중요한 문제다.

예술가의 연예인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연예인 같은 예술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살벌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본의 논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오락 방송 등에 부지런히 출연해 이름을 알리는 식의 노력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기를 위해 자신의 예술적 믿음을 꺾는 것은 큰 문제다. 그러다보니 꿈, 소신, 야망, 이상, 철학 같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지레 포기해버린다. 그 결과 예술세계가 가법고 얄팍해진다. 가난의 괴로움에 비하면 인기와 돈의 유혹은 참으로 달콤하다.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나는 조영남의 작품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죄가 확정된 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림에 더 집중하겠다. 더 열심히 그리겠다. 이렇게 허접한 그림 그리는 사람 때문에 5년 동안 그 소란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게 그려려고 노력하겠다. 조수를 써야할 정도로 바쁘고 인기 있는 화가가 되고 싶다."

나는 그 말을 믿는다. 우리 사회에도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머리 좋은 팔방미인 한 사람쯤 있어도 좋지 않은가? 용모까지 훌륭하면 금상첨화겠지만...

/ 미술 산책 III /

전쟁후 만발하는, 풍요로운 문화



박재은 (미대 63)

지금 전세계는 공상과 학소설같은 어처구니없는 virus전쟁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얼마전 미네소타주에서 무지한 백인경찰이 한 흑인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살해하는 장면이 보도, 분노의 데모가 맹렬히 진행되었다.

지구상에 발생했던 모든 전쟁은 인간 속에 virus처럼 잠재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 탐욕 등의 죄악이 극도로 찾을때 풍선처럼 터진다. 온세계가 멸망한 남의 나라를 날강도처럼 무력으로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려는 아수라장이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듯, 이번 corona virus전쟁은 극도에 달한 인간의 탐욕, 무지함이 위대한 자연을 오염, 파괴하고 있음과 똑같이 신성한 인간존재 자체를 오염하고 파괴함으로써 발생한 전쟁이다.

인류는 지난 200여년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갑자기 누리게 된 물질의 풍요로움에 덮쳐, 모든 가치의 기준을 물질에만 두는 물질만능의 천박하고 유치한 가치관으로 인해, 고귀한 인간정신을 잃고 황량하게 말라 피폐된 빈천한 정신을 가진, 해독한 흥물이 되어버렸다.

진, 선, 미의 구도행각의 수련훈련을 하는 교육자와 교육기관이 자격증인 학위를 파는 천박한 장사꾼, 장사판으로 타락되었고 예술도 마찬가지로 타락되어 아무런 기초를 가지지않은 그저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형태들이 판을 치며 성행하고 있다.

90년대 인가, 몇해 전 이곳 Brooklyn Museum에서 개최한 그룹전에 Africa출신 흑인 화가가 코끼리똥을 발라 그린 아무런 예술적 기초가 없는 Maria 상 그림을 전시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 사건으로 그의 그림이 London에서 고가로 팔린다는 기사를 내며 '이런 엉터리 현상이 얼마나 갈까라는 평론을 미술잡지 ArtNews에서 읽었다.

샘이라고 작품명을 붙여, 번기를 전시해 기업을 토했던 1950년대 화가 듀샹은 그 자신 미술사의 모든 발전단계인 사실주의, 인상주의, 입체파등 미술사의 모든 화파를 master했던 진지하고 훌륭한 작가였다. 갑자기 누리게된 물질의 풍요로 덮쳐, 물질만능의 병폐 속에, 고귀한 정신교육을 못하고 성장한 현 세대들의 황량하고 빈천한 정신상태로 저지른 행위는 끔찍하다.

지난 미네소타에서 벌어졌던 무지한 백인 경찰의 행위도 황량하고 무지한 정신을 가진 현세대가 저지르는 끔찍한 행위의 표상이다.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좁은소견 때문에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와 다르면 무조건 배척, 적대하는, 도저히 의사 소통이 안되는 현시대 인간의 죄악의 표상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무시무시한 상황들을 곳곳에서 당하며 현재, 이 사회에 살고있다.

전쟁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필요악이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항상 인간 세상에는 더욱 성숙되고 더욱 풍요로움이 펼쳐진다. 2차 세계대전후 Roosevelt 대통령은 극심했던 경제공황 속에, 경기부양정책으로 WPA(work project administration)제도를 만들어 화가들을 공무원처럼 고용해 공공건물에 벽화를 그리게했다. 이 project 가 단, 4년간 지속 했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세계각처에서 피난 온 미술가, 음악가, 지식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미국, 특히 이곳 New York에서 세계역사상 드물게 위대한 찬란한 문화가 만발하게 꽃피었다.

미술에서는 독일에서 피난해와 이곳, New York에 정착해 많은 위대한 제자들을 길러내며 자신의 예술철학을 치열하게 추구하며, 작품활동을 하다 생을 마친, Hans Hoffman, Netherland에서 피난해와 이곳에 정착한 De Kooning, Pollock 등, School of NewYork에 의해 미술사의 형식과 내용의 정점을 이룬 Abstract Expressionism이 탄생했다. Pollock도, Gorky도 이 project에 속해, 작가 생활을 했다.

이 시절 체코에서 피난 온 드볼작은 뉴저지에 살며 생의 환희에 찬 신세계교향곡을 작곡했다. 내가 이곳에 도착한 1975년대에 내가본 이곳 New York의 거리, Time Square, GreenwichVillage, Soho 거리는 이런 풍요롭고 영화로운 기운이 아직도 남아 어디에나 넘쳐 흘러 나는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 온 것 같았다.

우리 인간은 이 광활한 우주속에 극히 작은 티끌 같이 미소한 지구에 살고있는 virus처럼 미세한 존재이지만 우주를 움직이는 energy인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의 실체는 진, 선, 미의 실체인 우주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정신과 육신을 가진 신령한 존재이다. 따라서, 학문, 종교, 음악, 미술 등 인간의 모든 지적활동은, 우리의 본래 실체인 진, 선, 미의 실체인 우주를 사모하며 연구하며 우주처럼 완벽하게 자신을 완성하는 수련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인생의 궁극의 목적이다.

이 지고지순한 인간정신의 표상이 학문이고, 예술 활동이고, 교육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 달에서 흙을 파오는 등 온갖 짓들을 하지만 그건 손오공의 잔재주 같은 걸만 보는 인간의 미세한 잔재주이다. Bethoven의 교향곡, Debesy의 피아노곡 이 더 사무치게 실감하는 우주와의 교감이다.

힘든 행정업무로 지친 머리를, 조용한 시간 피아노를 연주하며 생각을 다듬었던, 수준급 pianist였던, 투루만대통령시절의 사회상과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한 현 사회상은 참으로 다르다. 지금 전철, 상점, 시내 어디에도 뒤아 내고 소독하고 청소하고있 듯 지금 이 사회 구석구석에 virus처럼, 인간내에 잠재하고있는 탐욕, 무지, 어리석음, 유치한 허영등의 죄악을 Corona virus와 함께 씻어내고 곧, 더욱 성숙된 풍요로운 정신 문화를 가진 건강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길 기대해본다.

/ 심과 휴식 /



박평일(농대 69)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바람소리에 깨어나 시계를 보니 밤 두시 30분, 어둠 속에서 하얀 꽃들이 소록 소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가 아니라 하얀 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소리라는 사실을.. 그 창조의 신비로움에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당신은 아시는지요? 꽃들은 햇빛을 받으며 낮에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별빛을 받으며 밤에 피어난다는 사실을.. 당신은 또, 아십니까? 꽃이 저토록 아름다운 이유를.. 숲속 식물들은 밤에는 산소를 들이 마시고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내쉬며 호흡을 합니다. 자신들을 먹고사는 숲속 가축들, 인간, 동물, 산새, 벌레들을 편히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들이 마시고 산소를 내쉬며 호흡을 합니다. 자신들을 먹고사는 숲속 가축들의 왕성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의 신비로움에 가슴이 마구 뛩니다. 사랑은 고통 속에 피어나는 불꽃입니다. 꽃은 고통 속에 피어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한 편의 시입니다.

-새벽에 한 선배가 보내준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찬송가를 들으며 적은 메모 -

Advertisement for SNU Alumni Association USA. Text: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5대 신용남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뉴욕.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 총 모금액 TOTAL

\$484,143

<모교발전기금포함>

종신이사 (\$3,000) 명단

골드 이사 \$10,000 이상 실버 이사 \$6,000 이상

남가주 강신용(사대 73) 락용길(문리59)김경숙(간호 68) 김동훈(의대 71) 김보연(간호 63) 김재영(농대 62) 노명호(공대 61) 노재성(법대 58) 박명근(상대 63) 박윤수(문리 48) 박종수(수리 58) 박원준(공대53) 방명진(공대 73) 서동영(사대 60) 서영석(의대 55) 서치원(공대 69) 심상은(상대 54) 심화섭(약대 61) 오재인(치대 33) 오홍조(치대 56) 이병준(상대 55) 이세열(사대 57) 이종도(공대 66) 이정광(상대 61) 이홍표(의대 58) 임낙균(약대 64) 임윤오(의대 57) 전희택(의대 60) 정동구(공대 57) 정임현(간호 72) 정재훈(공대 64) 제영혜(가정 71) 조용원(문리 66) 차민영(의대 76) 차중환(사대 54) 하기환(공대 66) 한귀희(미대 68) 한홍택(공대 60) 한효동(공대 58) 북가주 김정희(공대 56) 손석보(공대 68) 민병곤(공대 65) 전해경(문리 67) 뉴욕 김광호(문리 62) 신승남(농대 70) 오인석(법대 58) 윤정욱(약대 50) 이기영(농대 70) 이진구(농대 60) 이재덕(법대 60) 이준행(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보건 69) 김문소(수리 61) 박경민(의대 53) 박영철(농대 64) 오세경(약대 61) 윤상래(수리 62) 윤선홍(치대 64) 정선주(간호 68) 정정욱(의대 60) 정태영(문리 71) 홍지복(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식(사대 58) 권기현(사대 53) 류재풍(법대 60) 민홍기(문리 61) 방은호(약대 43) 오인환(문리 63) 워싱턴주 이희백(의대 55) 시카고 남상용(공대 52) 심상규(상대 63) 이용락(공대 48) 정 태(의대 57) 한재은(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빈(문리 58) 미네소타 김권식(공대 61) 남세현(공대 67) 조형준(문리 62) 변우진(인문 81) 오하이오 김용현(경원 66) 중부텍사스 이광연(공대 60) 조지아 주중광(약대 60) 허지영(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중민(공대 64) 손재욱(가정 77) 이만택(의대 52) 주기목(수리 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이교락(의대 53) 이상강(의대 70) 메릴랜드 최지원(의대 61) 휴스턴 박태우(공대 64) 조시호(문리 59) 케네디음악회수익

일반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회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동창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제 혜택 및 기부안내

- 1)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12 델라웨어주에 비영리 법인 (IRC 501(c)(3))으로 등록되었으며
- 2) 미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미주 각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단체 면세승인 (Group Tax Exempt) 번호 3784를 취득하여 여러분의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또한 연방국세청법(IRC 2055, 2016 and 2522)에 따른 각종자산에 대한 유산 (Bequests, Legacies) 유증(Divises), 양도(Transfers) 및 기증(Gifts)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4)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동창회로 문의해주시시오.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SNUAA-USA /E. Peter Shin, ESQ.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T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www.snuaa.org

/ 칼럼집 /



고 이윤모(농대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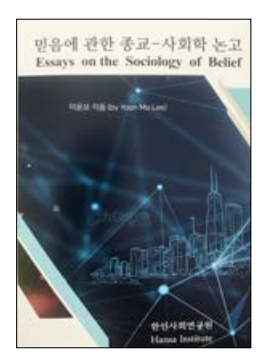
지난 50여년 동안 시카고 지역에서 한인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다 2년 전에 타계한 이윤모 박사는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과 미국 캔터키주의 애스베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시카고의 로올라대학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PhD 학위를 취득하는가 하면 시카고 한국일보의 창간멤버로 편집국장도 지냈으며 은퇴할 때까지 일리노이 주정부의 인권국에서 활약하면서 주류사회에서의 소수민족 권리증진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말년에는 싱크탱크인 <한인사회연구원>을 설립, 미중 서부 일대의 한인사회 문제점들을 학술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은퇴후 그동안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죽음으로 발표되지 못했는데 미망인 이희석 여사와 가족 및 편집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여러 간행물들에 기고하였던 글들을 모아 <이윤모 박사 칼럼집>을 간행하고 이번에는 컴퓨터에서 찾아낸 원고들을 정리하여 유고집 <믿음에 관한 종교-사회학 논고>를 출간하였다.

‘믿음에 관한 종교-사회학 논고’

<믿음에 관한 종교-사회학 논고(Essays on the Sociology of Belief)>는 고 이윤모 박사의 유고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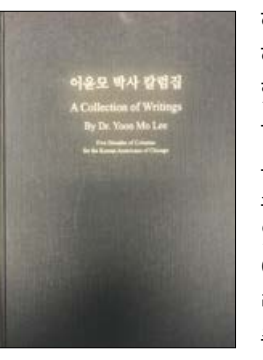
이 박사는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종교 내지 교회에 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종교사회학으로 종교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종교적인 신앙에서부터 사회적 신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믿음의 현상을 살펴보고 분석하면서 그 본질을 추적하고 있다.

이 박사가 완성한 원고가 아니라 집필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으로 이 박사가 의도하고, 이야기하고 싶던 것



이 무엇인지 이 책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원고가 아니라 자료집을 뒤져서 이같이 엮어내었다는 점에서 편집진들의 노력과 정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 박사의 글은 원래 난해하다. 그러나 요즘 국내외의 종교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의 틀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윤모 박사 칼럼집



이윤모 박사 칼럼집은 고인이 생전에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길을 왜 걸었는지, 그의 새이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 고 이윤모 박사는 사회학 박사로서 이민자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최선을 봉사하였다. 그는 1970~1980년대 한인들에게 한국 신문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한국의 소식을 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커뮤니티안에 대화의 장을 열어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글을 써왔다. 고인이 쓴 칼럼들은 반세기 동안 시카고 한인사회를 사랑했고, 또 한인사회의 그 루터기와 미래를 위하여 이모저모에 대

하여 염려하고 고민했다. 이 글들 속에서 고인이 평소 생각해왔던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소수민족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정신의 뿌리와 | 생각의 날개들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글을 통하여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추천 책 /

꿈길 I II



고 김옥자(음대 56)

김시면(64)씨가 세상을 떠난 아내 김옥자(음대 56) 동문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와 단체장을 맡으며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과 함께했던 수많은 프로젝트, 언론에 기고했던 오피니언 기고 등을 모은 2권짜리 '꿈길(표지)'을 발간했다. "양지쪽 우물가에 향아리가 놓여있다. 감도는 언저리에 파르라니 열린 하늘(..중략) 우물히 파인 그속에 꿈은 질어 가는가" 김 회장이 66년 전 18살 때 전국 북



일대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시다. 당시의 시 내용은 청운의 꿈을 담았다. 가난의 탈출구는 파르라니 열린 하늘 바로 미국이었다. "돌아켜보니 그 향아리 안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함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어느 정도 부를 이뤘지만, 지금은 텅 빈 느낌입니다. 힘들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책(권당 10달러) 판매 금액은 전액 교회와 단체에 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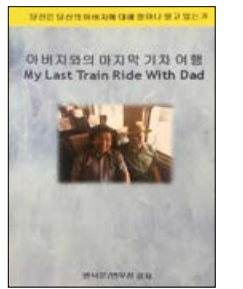
/ 추천 책 /

아버지와 마지막 기차여행



변우진(인문 81)

미네소타 거주한 인 변호사 변우진(사진)씨가 최근 아버지와 함께 기차여행을 하면서 나눈 대화를 정리해 책으로 출간했다. 변 동문이 내놓은 책의 제목은 '아버지와 마지막 기차여행(My Last Train Ride With Dad - 표지)'이고 부제가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붙어있다. 변씨는 "그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자신들이 읽기를 원했는데 작은 결과



나마 얻었다"며 "처음에는 아버지와 둘이서만 가고 싶었는데 출판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버지 변낙문씨와 변우진 동문의 공저로 세상에 나온 책은 재미와 감동, 지식이 듬뿍 담겨 있다. 아들이 질문하고 아버지가 대답하는 형식이다. 서울에서 부산행 열차를 왕복으로 함께 하면서 한 대화치는는 무척 세련되고 깊은 생각과 넓은 정보가 묻어난다. <중앙일보 발췌>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제 15대 회장단 제 1년차 수입 & 지출 재무보고

수입 지출의 요약 (as of June 30, 2020)

수입 보고 7/1/2019 - 6/30/2020		
Balance from Previous Term	이월금	\$ 36,610.00
Balance from Previous Term	이월금 (2차 - 10/26/19)	\$ 27,365.02
Donation	동창회 후원금	\$ 36,320.00
Membership Fee	동창 회비	\$ 79,119.00
Advertisement	업소록 광고비	\$ 24,906.00
Scholarship	장학금	\$ 2,650.00
Charity Fund	나눔	\$ 500.00
Brain Network Seminar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 200.00
Fund for Alma Mater	*모교 발전기금	\$ (3,900.00)
Permanent Membership Fee	*중신 이사회비	\$ (49,500.00)
Supporting Fund (Chapter - Local)	지부 분담금	\$ 19,300.00
Interest	이자 수입	\$ 1818.01
Cruise Deposit Return	크루즈 예약 해약금	\$ 7,000.00
Annual Conference Income	평의원 행사 수입	\$ 15,600.00
Carnegie Concert Profit	*카네기 순수익	\$ (6,637.55)
Donation	도내어선 (신용남 회장)	\$ 16947.74
GROSS PROFIT	총수익금	\$268,335.77 (\$60,037.55)

지출 보고 7/1/2019 - 6/30/2020		
Administrative (Wage)	행정 비용	\$ 62,546.45
Annual Conference	평의원 행사비	\$ 35,547.74
Bank Charge	은행 수수료	\$ 130.18
Collection Comm.	광고 수집 비용	\$ 800.00
Delivery & Postage	동창회보 개별 운송비 & 우표	\$ 3,200.62
Editorial	편집부 비용	\$ 886.04
Funeral & Other	경조사비	\$ 614.50
Gift	특별 기고자 상품	\$ 750.00
Gift	홍보용 선물	\$ 504.37
Lecture	강연료 / 모교	\$ 7,500.00 **
Local Chapter Meeting Expense	지부 동창회 행사 지원	\$ 2,370.95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 732.45
Paypal Trasfer Fee	Paypal 수수료	\$ 162.81
Printing	동창회 홍보지 인쇄	\$ 68.60
Printing	동창회보 인쇄	\$ 38,998.19
Returns & Aollwance	미결제 회비	\$ 375.00
Staff Meeting Expense	회의 식사비	\$ 1,262.38
Supporting Fund	외부 지원금 (동문 단체)	\$ 1,000.00
Supporting Fund (Seoul)	한국 동창회 분담금	\$ 11,000.00
Supporting Fund for Local Chapter	동창회 지부 보조금	\$ 3,750.00
Travel	버뮤다 크루즈 예약금	\$ 8,000.00
Travel / Visiting	방문 여행 비용	\$ 4,882.27
U.S Postal Service	동창회보 운송비	\$ 23,500.00
Website Service	웹사이트 도메인 서비스	\$ 587.37
EXPENSE TOTAL	총지출금	\$ 201,669.92
	순수익금 (이월금 포함)	\$ 66,665.85

* 모교 발전기금, 중신 이사회비, 그리고 카네기 순수익은 수입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관리함. 별지 참고.
** 모교 발전기금에서 공제 처리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동. 창. 회. 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중신이사회비		모교발전기금	
Beginning Balance	\$ 277,265.74 (2/18/20)	Beginning Balance	\$ 142,598.03 (2/18/20)
Members	Amount	Name	Amount
민홍기	\$ 3,000	권철수	\$ 100
노재성	\$ 3,000	남세현	\$ 2,000
김경숙	\$ 3,000	오인환	\$ 300
홍지복	\$ 3,000	오석일	\$ 100
이회백	\$ 3,000	박원준	\$ 300
정동구	\$ 3,000	한광수	\$ 500
이용락	\$ 3,000	양서명	\$ 100
심상구	\$ 3,000	심상은	\$ 200
정임현	\$ 1,500	최재귀	\$ 300
김보연	\$ 3,000	Total	\$ 3,900
하기환	\$ 3,000		
민병근	\$ 3,000	2019년 모교	
전해경	\$ 3,000	Brain Network	\$ (7,500.00)
곽용길	\$ 3,000	행사 강연료	
최지원	\$ 3,000		
이홍표	\$ 3,000	Balance	\$ 138,998.03
신용남	\$ 3,000		
Grand	\$ 49,500		
Total			
카네기 행사 순수익	\$ 6,637.55		
Balance	\$ 333,403.29		
	*1500불 미입금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대 회장단 제 2차년도 예산 편성

수입예산 7/1/2020 - 6/30/2021	
INCOME	
Membership Fee	\$ 80,000
Donation under \$500	\$ 35,000
Donation more than \$500	\$ 60,000
Pyoung Eui Won Membership Fee	\$ 7,000
Scholarship	\$ 5,000
Alma Mater Development Fund (모교발전기금)	\$ 4,000
Local Chapter Support	\$ 20,000
SNUAA in Korea	\$ 6,300
Advertisement	\$ 40,000
TOTAL INCOME	\$ 257,300

지출예산 7/1/2020 - 6/30/2021	
Newspaper (Monthly Journal)	
Printing	\$ 35,000
Deliveries	\$ 25,000
Editorial Staff	\$ 45,000
Sub-Total	\$ 105,000
Office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Expense	\$ 35,000
Advertisement Commission	\$ 6,000
Office Supplies	\$ 5,000
Travel	\$ 5,000
Legal and Accounting Expenses	\$ 1,200
Website Maintenance	\$ 6,000
Computer Software	\$ 500
Postage	\$ 800
Staff Meeting	\$ 2,500
Bank Charges	\$ 200
Sub-Total	\$ 59,200
Annual Conference (꺀30차 평의원회)	
Food	\$ 30,000
Transportation	\$ 2,000
Lodging	\$ 2,700
Sub-Total	\$ 34,700
Entertainment	\$ 1,500
Staff Help	\$ 2,000
Equipment	\$ 1,000
Stationery	\$ 1,200
Promotion	\$ 1,500
Educational	\$ 1,000
Sub-Total	\$ 42,900
Support to Local Chapters	\$ 5,000
Support to SNUAA in Korea	\$ 11,000
Donation to SNU alma Mater Development Fund	\$ 2,500
TOTAL EXPENSES	\$ 225,600
Other Projects	
Brain Network for 2020	\$ 10,000
Charity (2019.7.1. - 2020.6.30.)	\$ 2,500
Website Development	\$ 2,500
Rainy Day Fund	\$ 10,000
15대 임기 회보 기념집 발간	\$ 10,000
G / TOTAL	\$ 260,600

15대 회장단의
2차년도 회기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시오

9월 후원자 감사합니다

*중신이사

변우진 (인문 81)

강상진(의대55) **이내원(사대 58)** **전상욱(사대 52)**

김광현(미대 57) **박종승(의대 56)** **오인환(문리 63)** **허선행(의대 58)**

김현주(문리 61) **유기정(간호 72)** **최희수(문리 67)** ***\$500이상 후원자**

중신 이사비 (\$3,000 이상 / 95명)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정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S)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민병근 (공대 65) 손석보 (공대 68) 전해경 (문리 67)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이용락 (공대 48) (S)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곽용길 (문리 59)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재원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영근 (상대 63)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S)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용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욱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워싱턴 DC 강연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S)	필라델피아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록 (수의 68)
서영석 (의대 55) 서지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귀희 (미대 68) (S)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뉴잉글랜드 고원석 (보건 69) 김민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워싱턴주 이희백 (의대 55)	미네소타 김관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상대 63)	메릴랜드 최지원 (의대 61)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중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중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여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e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내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o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otechinc.com

김원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oa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jp@snu.ac.kr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150 (2020.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ua.org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석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혜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중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원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록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echoi@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an-Dec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Jan-Dec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홍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e@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MEDICAL CLINIC

실로암 병원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INNOVATION CONTINUES

Fairway Asset

업계 최고수준을 반영하는 정직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용자전문회사입니다.
Fairway Asset은 모기지, 그 이상의 전문업체입니다.

남옥현 (경영대 84)

Fairway Asset Corporation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301) 279-6969 (Office)
(301) 279-6968 (Fax)

info@facloan.com

www.facloan.com



Red Wing, Minnesota, USA
 Developer: IPS Solar
 Engineering: EVS, Inc.

SOLAR DEVELOPMENT

태양광사업에 관심있으시나요?

- Commercial & Industrial Buildings 에 태양광 설치
- Green & Brown Fields 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사업에 투자
- 태양광분야의 전문가 모집 (전기, 기계, 토목, 구조 분야)



미국에서 앞서가고있는 태양광기업 (EVS, Inc) 에 연락주세요.



김권식대표(공대 61)
 dkim@evs-eng.com
 (612) 961-6878

www.evs-eng.com